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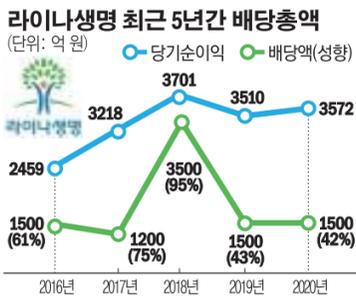
<시그나그룹>

## 美라이나생명 ‘먹튀’ 논란

라이나생명의 본사 미국 시그나그룹이 보험 사업 분야를 자국 처브그룹에 매각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시그나그룹은 라이나생명을 운영한 지 30여년 만에 매각대금 6조 원과 배당금 1조 원을 챙겨 국내에서 철수한다. 최근 매각된 오렌지라이프와 푸르덴셜생명의 매각가(2조~3조 원대)와 비교하면 최대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무엇보다 철저한 마진 중심의 영업을 이어오다 받을 뻔 시그나그룹에 우리 금융당국이 매각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을 내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시 시그나그룹은 자본금 349억 원으로 한국 보험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관련기사 3면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 보면 라이나생명의 본사 미국 시그나그룹이 보험 사업 분야를 미국 처브그룹에 매각한다. 거래 가격은 총 57억5000만 달러(약 6조9000억 원)로 협상은 내년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나생명은 1987년 외국계 생명보험사 최초로 한국에 진출했다. 7월 기준 누적 순이익은 1651억 원으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알짜 회사다. 자기가



자본금 349억 시작, 6조에 매각 ‘오렌지라이프’ ‘푸르덴셜’의 3배 10년간 1조1650억 배당금 챙겨 ‘디지털 손보사’ 등 사업 불투명 ‘국내 보험시장에 악재’ 우려도

분수익률(ROE)은 21%에 달한다.

라이나생명의 갑작스러운 철수 소식에 보험 시장은 굵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먹튀 논란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시그나는 최근 10년간 총 1조16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미국 본사에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2016년 이후 특히 높아졌다. 2018년에는 370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95%에 달하는 3500억 원을 배당해 ‘국부유출’ 논란이 일었다. 배당액은 라이나생명의 지분 100%를 소유한 미국의 모기업 시그나그룹이 챙겼다. 한국 보험 시장에서 내는 이익을 고배당 정책으로 미국 본사에 갖다 주기 바빴던 것이다.

국내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물거품 되는 점도 우리 보험 시장엔 악재다. 시그나는 6월부터 ‘외국계 1호 디지털 손보사’ 등장을 예고하며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라이나생명에 법률검토팀을 만들어 설립 사전 준비를 이어온 바 있다. 하지만 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국내 디지털손해보험사 설립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선 이 모든 작업이 매각을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시선을 보낸다.

상황이 이렇자, 대주주변경 과정에서 당국의 개입조가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국은라이나생명이리스크 없이마진을 중심으로 영업방식을 영위했던 터라 굵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봐 왔다. ▶10면에 계속

서지연 기자 sjy@



### “특별관리” 일대일 대화 걸어 매매 유도... 피해 사례 급증

#. A 씨는 추석 연휴 3일 사이 2000만 원을 잃었다. 연휴 전 손실까지 합치면 4000만 원 이상 날렸다. 카톡 리딩방에서 만난 ‘팀장’의 지시에 따라 AI 알고리즘 투자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다. 이 프로그램은 나스닥, 비트코인, 리플, 오일 등에 1~2분 단위로 진입하며 매수와 매도를 반복 실현한다. 오픈카톡방에서 팀장(방장)이 ‘시그널’을 주면 매매를 시작한다. 3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팀장의 시그널에 따라 수시로 매매 인증샷을 올려가며 투자에 몰두했다. 99.6% 수익 실현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달콤함에 현혹됐다. ▶관련기사 10면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코인의 리딩방으로 몰리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수익을 올리고 싶은 기대감에 신뢰성조차 갖추지 못한 리딩방의 정보만 듣고 ‘묻지마 투

자’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를 악용해 허위로 상장하는 리딩방의 사기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A 씨는 리딩방 가입 초반엔 쓸쓸한 수익을 봤다. 이후 차츰 손해가 발생하자, 팀장은 마이너스를 매꾸 주겠다고 일대일 대화를 걸어왔다. 단체카톡방에서는 자동 매매를 쓰고 있지만, 수동 매매를 통해 특별히 따로 관리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단체카톡방에 있는 이들에겐 비밀이라며 입단속하기도 했다. 팀장은 일대일 대화를 통해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고 추가로 운운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 캐물었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수익성, 안정성에 훨씬 효과적”이라 꼬드겼다. 카톡 프로필 사진에 얹어놓은, AI 트레이딩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는 기사가 믿음을 줬다. 이 또한 다른 기사를 베낀 조작이었다. ▶10면에 계속

박소은 기자 gogumee@



### 美 ‘물류대란’ 산처럼 쌓인 컨테이너

24시간 가동되는 등 비상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삼성과 월마트, 페덱스 등 대형 유통업체와 운송업체들은 운영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캘리포니아주 LA항 전경. ▶관련기사 9면

미국이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포함해 공급망 관련 기업과 노조 관계자들을 소집, 회의를 마친 후 “로스앤젤레스(LA)항이

## 고승범 “전세·집단대출 연말까지 중단 없다”

대출 총량 6% 넘어도 예외 인정  
文 “실수요자 피해 없게 하라” 지시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규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동안 고수해 왔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규제를 유연하게 전환한 것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세대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10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전세대출에 대해 한도 관리를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정부 목표치인 6%대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의 발언은 금융당국이 정한 올해 가계대출 총량 6%대 증가율 목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이 월 2조 5000억~2조8000억 원씩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 원가량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총량제한규제 유연화 방안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고 위원장은 조만간 내용을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은행권 실무자들과 회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 가계대출 방안을 공개한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기준 적용과 관련해 “그 부분은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포함될 내용과 관련해선 크게 보면 DSR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8월부터 말했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전세대출 문제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청와대도 나섰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알림**

##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전경련외관 그랜드볼룸 11월 25일(목) 오후 2시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필름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하는 기업’들의 CSR활동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 업적을 치하·격려하는 이 행사는 2012년 첫걸음을 내디뎠던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매년 100여 개 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는 물론, 대학생을 포함해 일반인들도 참여하고 있어 회가 거듭될수록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부와 봉사 활동을 넘어 사회 캠페인과 경영 혁신을 통한 사회 발전 기여, 교육 기회 제공 및 공정한 상생 등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은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논의가 이뤄지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주최: 경제신문 **이투데이**
- 후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 일정: CSR 활동 기록 공모: 8월 16일(월)~10월 25일(월) 오후 1시까지  
심사: 10월 25일(월)~11월 4일(목)  
시상식: 11월 25일(목) 오후 2시 전경련외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
- 참가자격: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스타트업, 비영리단체(협회, 학교) 및 일반인 대학(원)생 포함
- 공모내용: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 및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모든 이야기
- 제출형식: 영상물(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모션그래픽 등 포함), PPT 등 공모내용 활동 증빙과 시각적 설명이 가능한 모든 형태
- 접수처: 공식 홈페이지 <http://www.csrfilm.co.kr/>
- 특전: 후원 기관장 명의 상장(장관상 15점)
- 문의: 이투데이 사무국 (02)799-2683

## 백신 접종 완료자 내달부터 美 간다

美정부, 외국인 입국 허용기로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해외 모든 방문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대신 접종 완료자들의 비필수적 여행에 대해 국경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미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이 자동차나 열차, 선박을 통해 미국을 오갈 수 있도록 멕시코·캐나다와 맞닿은 국경을 개방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일상적인 여행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항공기를 통한 입국에 대해서 특정 국가를 출발한 여행자 전원을 차단하는 대신 입국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 같은 필수 목적을 제외하고는 입국을 제한해 왔는데 사실상 19개월 만에 이러한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이다. 새 방침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표적 국가가 아닌 개인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순부터는 화물트럭 운전사처럼 필수 입국 목적이 있는 외국인도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미등록 이민자의 입국은 차단된다.

합법 입국자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상 절차에 따라 입국하면서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에서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존슨앤드존슨 계열사) 백신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아직 미국에서는 승인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도 인정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야놀자, 인터파크 사업 부문 2940억에 인수

지분 70% 확보... 글로벌 여행 시장 공략  
해외여행 플랫폼 SaaS기술 상호 연계로  
고객 사용성 부문 차별화된 경쟁력 갖춰

여행 종합 플랫폼을 꿈꾸고 있는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사업 부문을 인수하며 글로벌 여행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전자상거래와 여행 부문을 사들여 관련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다.

야놀자는 인터파크 사업 부문에 대한 지분 70%를 294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야놀자가 국내 기업으로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잠식하고 있는 해외여행 시장을 적극적

으로 공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양사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국내외 여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야놀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쟁이 치열해질 해외여행 시장의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등 인수를 통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여행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및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야놀자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II로부터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지하면서 일찌감치 인수 자금을 확보했다.

숙박, 레저, 교통, 레스토랑 등 통합 여행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인터파크가 갖고 있는 여행과 공연, 티켓 분야에서 시너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야놀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펼쳐 왔다. 시장에 대한 이해와 솔루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굴지의 기업들과 경쟁하며 글로벌 호텔 솔루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야놀자는 해외여행 플랫폼들과 SaaS를 상호 연계하는 등 고객 사용성 측면에서 더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 관련 분야를 넘기는 인터파크는 헬스케어와 바이오 사업을 남겨 둔다. 이를 통해 여행 외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야놀자 관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해외여행 수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성장엔진을 보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SaaS 리더십 확보와 함께 해외여행 시장을 질적·양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ati@

## “혈맹 굳건하다” 네이버, 신세계와 협업 속도

SSG닷컴 ‘쓱배송’ 네이버 장보기 입점  
N포인트·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가능



일러스트 손미경 기자 sssmk@

신세계그룹과 네이버가 동맹 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서 네이버가 갑작스레 발을 빼며 ‘혈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지만, SSG닷컴이 네이버 장보기에 입점하고 스타벅스가 네이버와 소풍 메타버스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약속하는 등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SSG닷컴은 네이버 장보기에 입점해 이마트몰 상품 배송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3월 신세계그룹과 네이버 간 지분교환 이후 진행되는 전략적 업무 협력의 일환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고객들은 오후 7시 이후부터 네이버 장보기에 접속해 SSG닷컴의 ‘쓱배송(주간배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만큼, N포인트 사용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이용도 가능하다. 네이버 장보기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역시 기존 SSG닷컴의 쓱배송과 동일하다.

SSG닷컴은 이번 네이버 장보기 입점을 통해 이용 고객층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국내 1위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

는 SSG닷컴의 입점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SSG닷컴은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을 기념해 인기 장보기 품목을 특가로 판매하는 ‘네이버 × 이마트 국민템 행사’ 등 파격적인 구매 혜택을 제공해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양사 협력은 3분기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첫 협업은 이마트와 네이버가 7월 시작한 소상공인 상생 프로젝트 ‘지역 명물 챌린지’다. 이는 이마트와 네이버가 손잡고 지역 우수 소상공인 상품을 ‘인생맛집’으로 브랜드화하는 상생 프로젝트다.

‘인생맛집’으로 개발된 소상공인들의 상품은 전국 이마트는 물론 이번 네이버의 쓱닷컴 장보기 서비스 등을 통해 판매된다. 이마트는 이달 초 지역명물 챌린지 후보 상품을 기획전과 소풍 라이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했다.

스타벅스도 네이버와 손잡았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8월 네이버와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고객 경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각기 보유하고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협력을 비롯해 빅데이터·IT·메타버스 등 분야에서 향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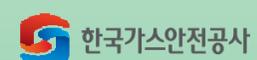
H2 청정연료 수소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미래



# 이사철엔 가스막음 안전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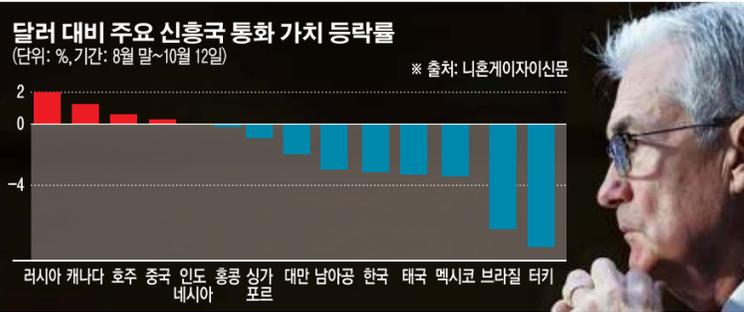
## 마음 설레는 이사날이 행복한 잔칫날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전문가에게 ‘가스시설 막음조치’를 신청하세요!

※ 이사철 가스사고의 원인은 가스시설 철거 및 시공불량으로 인한 막음조치 미비! 이사 3일전 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 LP가스는 가스판매점, 그 외에도 가스전문공사에 의뢰하여 가스 막음조치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 빨라진 美 '긴축시계' 신흥국 도미노 금리 인상

**美 연준 내달 테이퍼링 시사**  
**中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최고**  
**환율 압박 칠레 금리 1.25%P ↑**  
**韓 수입물가지수 7년여 만에 최고**  
**홍남기 "인플레 장기화 대비를"**



(121.61)보다 2.4% 상승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5월 이후 5개월째 올랐고, 지수 절대 수준(124.58)은 2014년 2월(124.60) 이후 7년 7개월 내 최고 기록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환율 상승세에 대해 "글로벌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 국내의 해외증권 투자 급증에 따른 수급 등 대내외적인 요인이 작동한 것"이라며 "환율 상황이 우려했던 것만큼 진행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투기적 요인에 의해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면밀하게 환율 동향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안정화 조치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김나은 기자 better68@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작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연준이 다소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흥국 통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등 글로벌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가 짙어졌다. 한국 정부도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준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서 "위원들은 다음 회의(11월)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기로 한 경우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에 해당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연준의 다음 FOMC 정례회의는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회의록에는 매월 미 국채는 100억 달러(약 11조9000억 원)씩, 주택저당증권(MBS)은 50억 달러씩 각각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구체적인 테이퍼링 방법도 제시됐다.

그간 시장에서는 연준이 테이퍼링 발표 시점과 실질적으로 자산매입을 축소하는 시점 사이에 시차를 둬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런데 이날 회의록은 연준이 11월에 테이퍼링 발표와 함께 곧바로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긴축 시간표가 빨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날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기존 분석과 달리 더는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CPI는 전년 동기 대비 5.4% 올라 2008년 이후 최고치였던 6월, 7월과 같았다.

WSJ는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은 불과 몇 달 전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다"면서 "올해 물가 상승이 연준 위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전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

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면 테이퍼링이 더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물론 중국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중국의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10.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흥국의 선행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미 러시아와 칠레,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은 달러 강세에 "올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연준의 긴축 행보에 보폭을 맞추려다 자칫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칠레는 이날 기준금리를 1.50%에서 2.75%로 1.25%포인트

인상했다.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린 것이다.

이미 신흥국들은 자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고유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지속, 중국 경기 둔화 우려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원화로 환산한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이 5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24.58로 8월

## 전문가가 말하는 투자 피난처

### “金·가치株·금융株 비중 늘릴 때”

#### 연말 배당 고려 금융주 투자 증권사 취급 금 현물 활용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회사원 박모(43) 씨는 지난해 해외 채권펀드에 5000만 원가량을 투자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수익률이 낮아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다.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금리가 뛰는 등 투자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다.

골드만삭스의 존 윌드런 대표는 13일(현지시간) 국제금융협회(IIF)의 연례 멤버십 총회 연사로 나서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이라며 "높게 형성된 기대인플레이션이 완화하려면 1년 혹은 2년, 어쩌면 그 이상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도 "향후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지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4%대 후반을 예상한다"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소나기를 피할 피난처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나기를 피할 처마' 역할을 할 자산은 없는지, 금융 전문가 4인에게 투자 전략에 대해 물었다.

◇가치株에 주목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내년 경기 둔화를 예상할 때 성장주보다 가치주 비중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세호 한국투자증권 GWM센터 팀장은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가치주보다는 저평가 성장주 흐름이 오히려 더 좋았던 사례도 있다"며 "무조건 가치주를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건 트렌드가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 따른 투자처로 꼽힌다. 김중찬 하나금융투자압구정금융센터 상무는 "만약 하반기의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면 가치주 위주의 투자전략이 좋다는 생각보다는 연말 배당을 고려한 은행주, 보험주 등 금융주 투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의 NH투자증권 골드넷WM센터 부장은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응해 물가 상승률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최선으로 보인다"며 "가령 나이키나 애플 같은 미국 기업의 경우 물건값을 비싸게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오른 물가를 소비자에게 넘길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의 주가는 시장의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로 이미 가격이 내렸지만, 2차전지의 성장성이 주목받는 점을 살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 투자 권유, 달러가치 하락 대비를 = 김중찬 상무는 "정말로 인플레이션 공포 상황이라면 주식에 모두 투자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이 있는 금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자산관리 전략이라고 보여진다"며 "특히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금 현물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추천했다.

정세호 팀장과 김영익 교수 역시 "금은 실물자산 매력이 있어서 포트에 가져가도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달러가치 하락 예상으로 일부 자산금 투자를 권유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의 부장은 "금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에도 1800달러 이상을 잘 못 넘는 거로 보면 금의 시대는 끝난 것 같다"며 "앞서 언급한 나이키, 애플 등 소비재 기업에 투자하거나 달러로 갖고 있는 것도 방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이난희 수습기자 nancho0907@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

## Aa2

Moody's 국제신용등급

### 자본시장의 성장나침반 한국증권금융

투자자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파트너 한국증권금융은**  
 1955년 증권시장에 대한 자금공급 및 지원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뛰었습니다.

자본시장지원 |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유동성 자금 지원  
 투자자보호 |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 등에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의 안전한 보관·관리  
 자본시장인프라 | 증권대차중개 및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서비스  
 우리사주제도 지원 및 개인·법인·기관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국민의 건전한 재산증식을 돕는 생활금융투자플랫폼 '한국포스증권'이 한국증권금융의 가족으로 함께 합니다.

# 수도권 1만호 2차 사전청약... 분양가 주변시세 60~80%

## 25일부터 11개 지구 접수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시 왕숙2지구와 성남시 신촌·낙생·복정2지구 등 11개 택지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 물량은 1만100가구다.

가장 관심이 큰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부분 지역이 3억~4억 원 수준이지만, 입지에 따라선 4억~6억 원대 아파트 물량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1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입주자를 미리 뽑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7월 인천 계양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을 통해 4333가구를 공급한 후 이달 1만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3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3기 신도시 1만100가구 공급= 2차 사전청약 물량은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관심 지역에 몰려 있다. 특히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형 물량이 2382가구로, 전체의 23.6%에 달한다.

지구별로는 △남양주시 왕숙2지구 1410가구 △성남시 신촌지구 300가구 △성남시 낙생지구 890가구 △성남시 복정2

3기 신도시·성남 등 인기지역 집중 대다수 3.3㎡당 1000만원 초중반 84㎡형 전체 공급 물량의 24% 남양주 왕숙2, 84㎡형 '5.6억' 내달 25일 청약 당첨자 발표

지구 630가구 △의정부시 우정지구 950가구 △군포시 대야미지구 950가구 △의왕시 월암지구 830가구 △수원시 당수지구 460가구 △부천시 원종지구 370가구 △인천 검단신도시 1160가구 △파주시 운정3지구 215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지구의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녹지와 공공문화시설(공연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도 구축한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서울 강남권으로 약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신설역(예정) 인근에 들어서며, 다산신도시와 연계해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본청약을 거쳐 2026년 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지구는 자족형



신도시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교육 문화·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였다. 파주시 운정3지구는 서쪽에 교하신도시, 동쪽에 운정신도시와 연계해 생활편의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할 전망이다.

서울과 가깝고 분당·판교신도시와 인접한 성남시 낙생지구와,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성남시 복정2지구는 공급 물량 전체를 신혼희망타운(총 1520가구)으로 채운다.

◇추정분양가 3.3㎡당 1000만 원 초중반 = 2차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성남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3.3㎡당 1000만 원 초중반 선에서 책정됐다. 전용면적에 따라 3억 원대 초반에서 5억6000만 원대까지 형성됐다.

남양주시 왕숙2지구 전용 59㎡형의 추정분양가는 4억1000만 원대, 전용 84㎡형은 5억6000만 원 선이다. 인천 검단지구 전용 84㎡형은 4억1991만 원, 파주 운정3지구 전용 84㎡형은 4억3000만~4억5000만 원 선으로 책정됐다.

반면 타 지역보다 땅값이 다소 높은 성남지역은 추정분양가가 3.3㎡당 2000만 원을 넘겼다. 성남시 신촌지구는 추정분양가가 3.3㎡당 2691만 원에 달해 전용 59㎡형이 6억8268만 원 수준이다. 이는 2차 사전청약 공급 물량 중 가장 비싼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인 성남시 낙생지구 전용 59㎡형 분양가는 5억1000만 원 선, 성남시 복정2지구 전용 55㎡형은 5억3840만

원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1차 사전청약 당시 고분양가 논란을 의식한 듯 "2차 사전청약 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며 이에 기준을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객관적 시세 비교를 위해 사업지 경계에서 2km 이내 아파트 단지 중 건축연령(2006년 이후 입주)과 일정 규모(100가구 이상) 단지를 기준으로 비교했다"고 말했다.

◇11월 25일 당첨자 발표= 2차 사전청약 공공분양은 25일부터 29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 접수가 우선 진행된다. 다음 달 1일과 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이어진다.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1월 8일 일괄로 청약을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은 25일부터 29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를 받고 다음 달 5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이 이어진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11월 25일 발표된다. 이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2만8000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 “선호도 높은 면적 피하고... 신혼부부는 희망타운 공략을”

### 2차 사전청약 당첨 필승전략

인천 검단·남양주 왕숙2지구 등 2·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예비 청약자들은 사전청약 접수를 10일가량 앞두고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선호도 높은 면적 피하라”= 청약은 결국 확률 싸움이다. 2차 사전청약에서는 전용면적 84㎡형의 물량을 늘렸다. 전용 84㎡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형이어서 청약 경쟁은 치열할 전망이다.

따라서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전용 84㎡형처럼 인기 면적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지난 8월 당첨자가 발표된 1차 사전청약에서도 전용 84㎡형의 경쟁률은 유독 높았다. 인천 계양지구 전용 84㎡형은 28가구 모집에 1만670명이 몰려 38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남양주시 진접2지구는 전용 84㎡형 45가구 모집

전용 84㎡형 청약 경쟁률 치열 면적 작을수록 당첨 확률 높아

1차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 불가 입주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해야

에 5053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1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면적이 작을수록 경쟁률도 낮았다. 남양주시 진접2지구 전용 51㎡형은 341가구 모집에 1297명이 몰려 경쟁률이 3.8대 1에 불과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작은 면적의 사전청약 물량에 도전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소득과 입지, 공급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혼희망타운이 공공분양보다 청약 경쟁이 덜 치열한 만큼 신혼부부 등은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1차 사전청약 당시에도 신혼희망타운은 인천 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관계자가 신도시 위치를 확인하고 연립뉴스를 설명하고 있다.

양신도시만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을 뿐, 모든 지역에서 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만일 2차 사전청약에 도전했다가 낙첨 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올해만 해

도 11월과 12월 사전청약이 분산돼서 이어지는 만큼 낙첨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입주 때까지 무주택 유지해야”= 유의할 점도 있다. 우선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가구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즉, 1차 사전청약 당첨자나 가구 구성원은 2차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꼭 2차 사전청약 접수 전 1차 사전청약 당시 당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차 사전청약에서 당첨됐더라도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 신청이나 당첨 또는 주택 구매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차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통해 공개한 분양가와 관련해서도 추정분양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 시 본청약 때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재영 기자 lly0403@

## 공공 참여 도시개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2 대장동' 막는다

이현승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토부, 초과이익 환수안 검토

앞으로 '제2의 대장동 개발 특혜'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야당은 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과도한 개발이익을 막는 법안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도 관련 법 개정엔 긍정적인 만큼 국정감사 이후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8일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 부지를 공공택지로 간주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대장지구 전경. 연합뉴스

현재 도시개발법에선 민간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SPC·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을 적용받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 시개발공사가 지분 절반 이상(50%+1주)

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반면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해 공공택지 개발 시 발동되는 토지 강제 수용권은 주어지지 특혜라는 지적이 일었다.

공공택지로 편입되면 아파트 분양 시의

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토지가격은 조성원가(또는 감평가)로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형 건축비로 제한돼 분양가를 대장동 사업처럼 시세만큼 올려 책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일부 중 소형 택지의 경우 사업 시행사가 건설사 등에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땅값을 마음대로 올려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지 못한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며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 수익 상한을 정하는 법안도 내놨다. 이 법안은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신도시 개발에 적용되는 토지개발촉진법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 개발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 규정을 따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안 등이 의원 발의안을 포함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5일 국정감사에서 "도시개발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개발이익 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10년 뒤 완전 자율운항... 56兆 경제 파급효과 기대

##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규제혁신 로드맵'

### 운항주체 등 법적 정의 마련하고 운용기술·장비 표준화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42만 일자리 창출 기대

정부가 2031년부터 완전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에 들어간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될 경우 2035년까지 56조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40만 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

련하고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모든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해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을 말한다. 향후 해운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의 유망 신산업으로서 해운 분야뿐만

### 자율운항선박 기술 발전 3단계 시나리오 예측

기술단계	step1 부분운항자율			step2 운항자율			step3 완전자율	
	~2025년 Lv2-①	~2025년 Lv2-②	~2025년 Lv2-③	2026-2030년 Lv3-①	2026-2030년 Lv3-②	2026-2030년 Lv3-③	2031년~ Lv4	2031년~
운항방식	선원(원격운항자에 의한 운항 지원)			시스템(원격운항자에 의한 관리)			시스템	
정비방식	선원정비			원격지원정비			원격정비	
운항해역	대양	연안	항내	대양	연안	항내	모든해역	

아니라 항만과 조선 등 관련 산업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2016년 66조 원 규모에서 점차 증가해 올해는 95조 원, 2025년에는 180조 원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로드맵은 운항방식, 정비방식, 운항해역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해서 2025년 부분운항자율, 2030년 운항자율, 2031년 완전자율 등 3단계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 활성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총 4대 분야, 31개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적 정의가 없어 기술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항이 규제자유특구지역 외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등급기준, 선원, 원격운항자 등 운항 주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정의를 마련한다. 승선하는 선원을 비롯한 인력의 근로기준 등 역할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기술 수준별로 승무원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원활한 실증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실증센터와 지정해역에서는 완화된 최소승무원기준 등을 적용한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해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의 정의, 설계 요구사항과 시험기준 및 안전기준을 마련, 상용화를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되

면 2035년까지 약 56조5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2만 명의 일자리 창출, 약 103조 원에 달하는 전·후방산업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글로벌 시장 규모에 고부가선종 수주율 67%, 국내 기업 수주율 31.4%, 국내 선가 중 기기장비 및 전장재 가격 비율 21.5%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2020년 해양수산업 분석보고서에서 해양수산업 중 조선업의 취업유발효과 7.4114(명/십억 원)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도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정했다. 아울러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의 75%가 감소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연간 3400억 원에 이르는 환경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낡은 규제와 제도는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강화해 자율운항선박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속·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 文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초광역협력으로 균형 발전”

### 부울경 잇는 메가시티 구상 범정부 지원협의회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 교통망을 조속 구축하고 일자리,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 거점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광역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이 힘을 받도록 관계부처 공동으로 초광역협력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초광역권 정의 및 지원 근거(균특법),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국토기본법·국토종합계획),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

영하는 등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기준 상향 조정,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50%→60%), 균특회계 지역 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 선정·관리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협력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준비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광역특별협약', 국가사무의 적극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도 마련한다.

지역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공간, 산업, 사람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단일 경제·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핵심인 광역철도와 같은 교통망과 지역 맞춤형 융복합 물류플랫폼 등도 구축한다. 초광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이 주도해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핵심 인프라 우선 구축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초광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동북아 8대 메가시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영일만항을 글로벌 관문 조성), 충청권(인공지능·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등 4개 권역의 추진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정일환 기자 whan@

##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10년 동안 100만\* 고객이 선택한 녹차건강기능식품

## 메타그린 골드



한 번만 경험해보면 꾸준한 습관이 되는 메타그린 골드, 지난 10년 동안 100만\* 고객의 선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을 연구하여 설계된 녹차 카테킨이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가볍고 원활한 대사 리듬을 완성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식습관에 메타그린 골드를 더하세요.

\*2012년 출시부터 2021년 2월까지 메타그린 누적 구매 고객수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 바이탈뷰티

# 중소 52% “인력 채용 못해 주52시간 시행 어렵다”

## 중기중앙회 실태 조사

‘유연근로제’ 활용 쉽지 않아  
“노사합의 기반 연장근로 도입  
특별연장 등 제도 보완 시급”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5~299인 중소기업 414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와 중소기업연합회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중소기업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밝혔다.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5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전 주면 예측이 어려운 유연근로제 활용이 어려움’ (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5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대응방법으로는 ‘애초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제 이내’라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탄력 근로, 선택 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이 30.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추가인력 채용’, ‘사전 근로계획 수립이 어려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등이 대응방법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유연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75.6%가 탄력 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5.1%는 유연근로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는 앞으로 도입계획과 관련해 ‘도입 필요 없음’ (33.1%), ‘탄력 근로제 도입’ (30.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탄력 근로제 외의 유연근로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의 경우 ‘유연근로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비중이 19.8%로 비제조업(5.6%)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가 꼽혔다. 이어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과 ‘탄력 근로제 사전근로계획 수립 및 변경방식 등 요건·절차 완화’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구인난,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로제 등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개선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전경련 60년사 한눈에 14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전경련의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고, 기업인들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고자 마련된 사진전에서 허창수(앞줄 맨 오른쪽) 전경련 회장, 이준석(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등 참석자들이 전시된 사진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홍남기 “디지털세 도입 땀 세수 소폭 늘어날 것”

##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디지털세 다자협약·모델규정  
후속조치 개별국 여건 고려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후속과원들과 만나 “(디지털세) 필라 1과 필라 2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 1)과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돼 있다.

홍 부총리는 “필라 1의 경우 수천억 원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정도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한국의 경우 해외에 과세 배분할 기업은 1개에서 많으면 2개 정도지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모아 보면 80여 개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라 2의 경우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는 이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필라 1은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 요인이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 전환을 예상했다. 반면 필라 2의 경우 다른 나라의 법인세 상향 등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세수 흑자 요인이 줄어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이 도출된 것을 환영하면서 “디지털세 합의안의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 마련 등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매출 귀속 기준, 마케팅 유통이익 세이프 하버 논의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산업특성,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전용우 KTL 센터장 박상호 KTL 센터장 유동훈 KTL 센터장 권종원 KTL 센터장 이정환 현대제철 책임

# “공정부산물 재자원화로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아끼고 CO<sub>2</sub> 배출량 줄일 수 있어”

## 탄소중립 엑스포 세미나

전용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탄소중립대응센터장은 “공정부산물 재자원화는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환경오염의 동시 해결이 가능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 공정부산물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 센터를 구축해 순환자원 창출형 공정 부산물 재자원화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산업계가 효율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3~15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탄소중립 엑스포’의 미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의 탄소중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환 현대제철 책임매니저는 “미래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고, 법 규제 등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가상 센서를 통해 센서 이상 징후 진단 및 설비 제어를 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센서가 최적의 환경 조건을 학습하고, 향후 신규 데이터 입력 시에 대한 예측을 통해 설비 운전 상태를 항상 최적으로 운영하게끔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호 KTL RE100인증지원팀장은 “KTL RE100인증지원팀은 창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내 첫 RE100 실증사업인 산단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

여해 RE100 인증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거래·소비가 산단 자체에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실증해 산단 내 기업들이 RE100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종원 KTL 산업지능화기술센터장은 “KTL은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시장의 변화 속도를 힘겨워하는 우리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상품 개발과 플랫폼 참여자 간 협업, 공유, 연결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 전기차·소제 등 10대 주력 산업 분야에서 30여 개의 문제 해결형 산업데이터 플랫폼으로부터 개발된 데이터 상품을 한국에 유통 거래할 수 있는 산업데이터 대표 유통거래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동훈 KTL 공업물리표준센터장은 “KTL은 수소차 충전소에서 검사장치에 수소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추진에 협력하면서, 중앙식 검사장치 개발과 현장에서의 운영, 수소 판매량 및 공급량 오차 실태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중”이라며 “이를 통해, 국산화 유량계를 실제 충전소에 설치하고 검증하여 외산물 대체함으로써 수소차 충전소의 유량계 구매 비용 절감과 수소 판매 손실을 절감 효과를 얻고 향후 수소차 충전소의 법정 계량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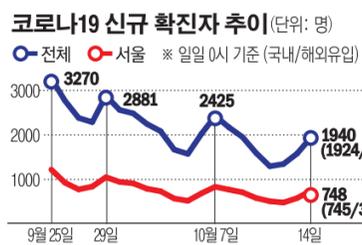
# “백신 접종률 85% 넘으면 마스크 벗고 집합금지 없다”

70%·80%·85% 기준으로  
방역조치 단계적 완화 방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환자가 100일째 내 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나마 발생 추이는 점진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완료율 85% 초과 시 사적모임 금지 등 모든 방역수칙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94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천절(2~4일) 연휴 이동량 증가와 휴일효과 종료에도 신규확진자가 2000명을 밑돈 점은 긍정적이다. 확진자 감소의 결정적인 배경은 예방접종 확대다. 권준욱 방대본 2부분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그 효과는 집단면역으로, 또한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유행의 차단으로, 심지어는 발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 기초재생산지수 3까지 감당할 수 있다. 85%를 넘으면 5에서도 감염이 확산되지 않는다. 권 부분부장은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집단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 없이, 집합금지 없이, 영업금지·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14일 0시 기준 예방접종 완료율은 61.6%, 성인(18세 이상) 대비로는 71.6%로 집계됐다. 평일 접종 완료자가 일평균 40만 명대만 유지되면 24~26일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접종 완료율 70%, 80%, 85%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예방접종 일정을 고려하면 12월 말에는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예약자는 소아·청소년이 46만6076명, 임신부는 2407명이다. 이들에 대한 1차 접종은 1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된다. 성인(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수·접종이 가능해 별도로 예약 인원이 집계되지 않는다.

관건은 85% 달성 여부다. 현재까지 1차 접종자와 소아·청소년, 임신부 예약자가 모두 접종을 마쳐도 접종 완료율은 80%를 겨우 넘는다. 결국, 완전한 일상회복은 성인 미접종자가 얼마나 많이 접종에 참여하느냐에 달렸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세상. 행복해지구

지구가 더 깨끗해지길  
사회는 함께 더 따뜻해지길  
기업은 신뢰와 공감을 통해 더 든든해지길

SK가 ESG로 만들어가는 길

지구도 사회도 기업도  
지속가능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 ESG로 세상. 행복하도록



### 수소 Value-Chain

꿈의 청정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  
생산-유통-공급망 생태계 조성



### 행복얼라이언스

걸식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기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안전망

###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회에 도움 되는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

### 친환경 에너지 생산·사용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가 좋아하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사용 확대

# 행복해지구



# ‘이재명 국감’ 사활 건 與野, 사보임부터 여론전까지 총력전

### 이 후보, 18일 행안위·20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출석 국힘, 공격수 전면배치... 민주, 캠프·당 차원 방어 올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하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대비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이 지사를 효과적으로 감쌀 수 있는 의원들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관련 질의가 가능한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는 등 여론을 최대한 끌고 오기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가장 먼저 한정에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 민형배 의원을 행안위원으로 보임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캠프의 전략본부장을 맡은 핵심 인물로 이 지사 수비를 도울 예정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행안위의 한 장관 자리를 다른 의원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사보임을 하고, 각 위원회 간사 중심으로 팀플레이를 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도 자체적으로 국감 대응에 나섰다. 이 지사 수행 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부분의 일정을 다 비우고 국감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캠프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 의원들도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쟁 경선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의원들도 이 지사 비호에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에서 전략본부장을 맡았던 강득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를 공식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신영수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겠다고며 “마크맨”을 자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세 전환을 노리며 여론을 최대한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이 지사를 공격하며 분위기 반전을 유도하려는 의도다. 민주당처럼 사보임을 통해 의원들을 전략 배치하는 방안도 확정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보임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라며 “박수영 의

원이 확정이고 다른 분들도 사보임을 해야 해서 협조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라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윤창현 의원 등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의원들이 사보임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20일 국토위 국정감사는 기존 의원들이 그대로 진행하고, 18일 행안위 국정감사를 위해서만 사보임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감사는 물론 지난주부터 시작한 도보 행진도 병행하며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경기도 수원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도 여론 향배에 따라 정치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론전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한 최고위원도 “지역별로 당 협위원장 중심을 순번을 정해서 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박준상 기자 jooon@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열린 필연캠프 해단식을 마친 뒤, 꽃다발을 들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이낙연〉 〈이재명〉 낙 지지자 14%만 “명 지지” 40%가 “윤석열 찍겠다”... 화학적 결합 험로 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에 수용의사를 밝힌 이낙연 전 대표가 캠프 해단식을 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화학적 결합이 과제로 주목된다. 이 지사로선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민주당부 4기 출범을 위한 당내 ‘원팀’ 구성이 절실한 반면, 대장동 리스크, 지지자들의 경선 효력 가치분 신청 등 위협 요소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이 전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열린 필연캠프 해단식을 마친 뒤 이 지사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의사나, 원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 전 대표가 경선 결과에 ‘승복’이 아닌 ‘수용’이란 표현을 쓴 것을 두고도 당 안팎에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분간 화학적 결합은 어렵다. 경선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역선택으로 야권을 지지할 가능성도

크다”며 “이 지사로선 무조건 이 전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등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지난 11일~12일 성인 2067명 대상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민주당 경선 당시 이 전 대표를 지지했다고 밝힌 604명 가운데 대선에서 이 지사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 비율은 14.2%였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40.3%에 달했다. 민주당에 잔류한 표의 2.8배가 국민의힘으로 이탈하면서 이 전 대표 지지층 내 이 지사에 대한 반감이 입증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 전 대표는 내년 2월 중순까지 잠재적 불복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장동 리스크가 폭발력이 크고, 이 지사, 대통령, 정당 지지율의 트리플 약세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윤석열·원희룡 “이재명, 특검 받고 구치소 압송될 것”

### 윤 “대장동 수사 속도 늦다” 지적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특검→구치소 압송’을 예단하며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4일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거대한 물줄기는 못 막는다는 것이 오랜 기간 사건을 접해 본 제 경험”이라며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결국 특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거액의 배당금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수상한 흐

름을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범죄”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 속도가 늦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사건이 터진 시점을 고려할 때 수사 진척이 늦다”며 “수사라는 게 크게 1~3단계로 나눠 관련 혐의자 수사, 돈을 누가 가져가 로비에 썼느냐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진작에 1단계가 끝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이 지사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원 전 지사는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최근 유튜브에서 ‘화천대유 특검’을 선보인 이유를 “이재명 지사를 깨기 위한 여러 공격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 수 목표는 2000만이다. 국민이 화천대유 특강을 2000만 번 조회해 본 상황이 되면 이 지사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안 먹힌다”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이 지사가 경선에선 압송했지만, 거기에 점 하나를 가운데 찍어 주려고 한다”며 “압송에 점 찍으면 압송이 된다. 이재명을 의왕구치소로 압송하는 게 목표”라고 거세게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모두가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세계로 이어진 30년.

세상 모든 아이들 편에서 함께한  
모두가 굿네이버스입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 신뢰 잃는 바이든... 美, 물가·공급망·고용 '총체적 난국'

사회보장연금, 내년 5.9% 인상  
물류대란 혼란 민심잡기 나섰지만  
코로나 대응·정책 신뢰도 하락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치솟는 물가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도 커진 탓이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내년 사회보장연금을 5.9%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4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으로, 은퇴자 약 7000만 명은 올해보다 92달러 증가한 월 1657달러(약 197만 원)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SSA는 음식과 자동차, 임대료 등 물가가 계속 오른 것을 인상 요인으로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심 잡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물류업체, 상공회의소, 트럭 노조, 전미소매업협회, 향만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인플레이션 주요 원인인 물류대란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뒤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식품과 텔레비전, 자동차의 부족과 긴 배송 시간,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초래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병목현상 완화를 위해 로스앤젤레스(LA) 항구는 24시간 운영을 시작할 것이고 정부는 각 주 정부에 트럭 운전사들에게 더 빨리 면허를 발급해줄 것을 장려하고 있다"며 "월마트와 페덱스, UPS를 포함한 기업들도 비수기 근무 시간을 늘리기 위해 움직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전자 북미법인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백악관은 "월마트와 페덱스, UPS, 삼성과

휴디포, 타깃이 전국적인 상품 배송을 가속화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연말까지 매주 3500개 컨테이너 분량의 제품이 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설명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는 최근 부쩍 줄고 있다. 취임 후 최저시급을 인상하고 세입자 되기 조치를 유예하는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쳤지만, 코로나19 대응책이 가파른 물가와 부진한 고용지표로 나타나면서 표심이 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와 입소스가 이번 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신뢰는 이전보다 떨어졌다. 6개월 이내에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클리프 영 입소스 홍보책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평가 핵심은 코로나19 해결 능력에 있지만, 그는 현재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 "델타 변이는 이제 사람들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당이 자체 실시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에서도 드러난다. FGI 참가자 9명 모두 바이든 대통령 정책에 'C' 또는 그보다 낮은 점수를 매겼다. 참가자들은 지연된 자동차 주문 배송을 지적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식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등 공급망과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6월 말 이후 15%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으며, 무소속 유권자들 지지율이 특히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명 기자 kodae0@



日 중의원 해산... 4년 만에 총선

14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해산이 선포되고 난 후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총리와 각료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중의원 해산은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이던 2017년 이후 4년여 만이다. 기시다 내각은 출범 4주 만인 이달 31일 총선을 치르게 된다. 중의원 해산 후 17일 만에 총선을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 기록이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대책 등을 놓고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국제에너지기구〉

## 갈 길 먼 脫탄소, IEA "연간 4조 달러 필요"

"녹색에너지 발전 너무 느려... 2016~20년의 평균 3배 이상 투자해야 목표 달성"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간 4조 달러(약 4749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페이스 비틀(사진) IEA 사무총장은 "현재 전 세계 녹색에너지 발전이 전 세계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느리다"면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 여야만 파리기후변화 협정을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IEA가 제시한 새 투자액은 2016~20년 평균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그는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개선, 태양광, 전기차 활성화를 추진하면 더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필요 없이 청정에너지 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면서 "말은 매우 간단하지만 화석연료만으로는 부족한 에너지 공급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IEA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판매가 신기록을 세우고 풍력



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이 급성장했지만, 실질적인 에너지 관련 지표 변화는 완만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올해는 각국의 전력난으로 석탄과 석유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오히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역대 두 번째로 큰 연간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리기후변화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이미 발표한 것보다 더 많은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세금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에너지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여러 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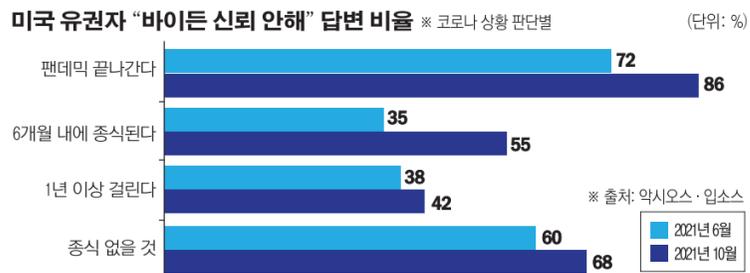
IEA는 청정에너지 투자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현재 전체 에너지 수요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EU의 석탄과 원유, 천연가스 최대 공급처다.

IEA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IEA는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것은 아니며, 유럽과 북미에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는 곧 자본을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는 대부분이 아시아와 전 세계 신흥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IEA 보고서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나왔다. 각국은 다음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기후변화운동단체인 350.org의 전무이사인 메이 보브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면서 "곧 닥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미리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조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美 3분기 어닝시즌 '인플레이'가 복병

델타 첫 흑자전환... 유가상승에 4분기 불안

미국의 3분기 어닝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입은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델타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JP모건체이스도 인수합병(M&A) 붐에 힘입어 시장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성적을 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전망은 불안하다는 평가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3분기 순이익이 12억 달러(약 1조4000억 원)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 분기 흑자로 연방정부 지원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첫 흑자 전환이다. 약 13억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뺀 순이익은 1억9400만 달러다. 미국 주요 항공사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기간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흑자를 찍은 것은 델타항공이 처음이다.

3분기 매출은 83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84억5000만 달러)를 살짝 밑돌았다. 주당 순이익은 0.30달러로 시장 전망치 0.17달러를 상회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델타항공의 실적 개선은 델타변이 확산으로 여행 회복세가 주춤하던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받았다. 코로나19 여파로 바닥을 찻던 항공 수요는 울여름을 기점으로 조금씩 살아났지만, 델타 변이 습격으로 예약률이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감하면서 여행과 출장 항공 수요 반등에 성공했다. 여기에 미국이 내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집중한 외국인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어서 여객 수요는 더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델타항공은 인플레이션에 발목이 잡혀 4분기에 다시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종을 울렸다. 실제 3분기에 걸린 1.94달러였던 항공유 가격이 4분기에는 걸린 2.25~2.40달러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JP모건도 예상을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내렸지만, 비용 증가를 향후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JP모건은 3분기 순이익이 117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 94억 달러를 훨씬 웃돌았다. 매출도 304억 달러로 전년치(299억 달러)와 시장 전망치(299억 달러)를 모두 뛰어넘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주미대사 "美, 삼성 반도체 정보요구 '자율'이라 말해"

"고도기밀 호락호락 제출 않겠지만, 기업에 압박될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주미대사가 입장을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는 "미국은 이런 요구가 자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기업이 고도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호락호락 제출할 것 같지 않다"면서도 "미국은 공급망의 순기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기업에 압박이 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지난달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인텔,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45일 내로 회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대로라면 기업들은 내달 18일까지 미국에 자료요청서(RFI)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가 요구한 자료에는 △3년 매출

액을 포함한 매출·주문 현황 △평균 및 현재 재고 현황 △제품별 고객 정보와 고객별 예상 매출 비중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과 초과 수요 대처 방법 △반도체 장치 유형·생산공정 리더십 포함 공정기술과 생산 현황 등이 담겼다.

이 대사는 "미국은 자율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고도의 정보를 기업들에 요청하고 있다"며 "기업이 대미 협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제러미 에드워즈 미국 상무부 부대변인도 12일자 본지와와의 인터뷰(10월 12일자 2면 '반도체 기업에 기밀자료 요구, 강제 아닌 자율' 기사 참조)에서 "공급망 전 부분에 대한 재고와 수요, 배송 역학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려는 것"이라며 "연방 관보 고시를 통해 제출된 기업들의 기밀 정보는 정부 규칙과 규정에 따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에드워즈 부대변인은 기한 내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수혁 주미대사가 13일(현지시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워싱턴D.C./연합뉴스

면 국방물자생산법 등을 동원해 강제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한국 내에선 미국의 요구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에 참석한 무소속 김홍길 의원은 "정보 제공과 미국 내 공장 건립 요구를 안 들어주면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적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이후 바이든 시대엔 달라질 줄 알았는데 하는 염려가 있다"며 "배터리 분야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대명 기자 kodae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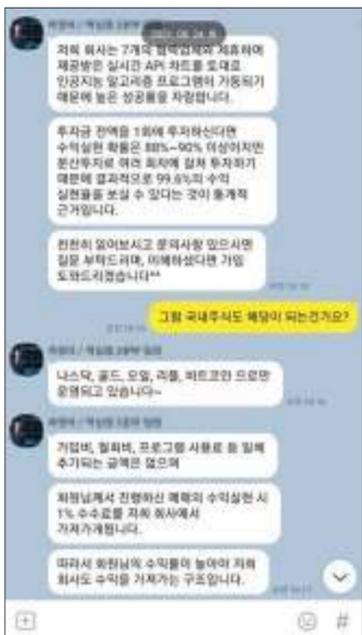
# 코인리딩방 피해자 ‘피눈물’에도 정부는 ‘뒷짐’만

최근 경찰서 등 수사당국에 코인리딩방 등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들의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민원 및 구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법안들이 계속 중인 상황이라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 사기피해자 민원·구제 요청에도 금융위·방심위 ‘우리 소관 아냐’ 손놓은 채 책임 떠넘기기 ‘급급’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 통과’

◇피해자 늘어나는데-손 놓은 금융위·방심위 = 최근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찍으며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대거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찰서 팀장은 “하루만 해도 코인리딩방 사기로 경찰서를 찾는 이들이 차고 넘친다”라며 “피해자들이 관련 수법을 정리한 양도, 혐의점을 살펴볼 내용도 많아 수사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자산 범죄 전문가들은 코인리딩방을 운영하기 쉬운 반면 검거가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 범죄가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 IP에 기반을 둔 사이트를 구매하기 용이하다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 관련 10년 이상 수사 경력을 보유한 한 전문가는 “해당 사건의 경우 사업자번호를 검색하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고 뜨고, 유망한 코인들을 위주로 매매를 지시해 투자자들이 (사기입을) 가려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련 수법이 정형화된 편인데도 수사 기간이 오래 걸려 피해



코인 리딩방에서 시 투자 알고리즘 프로그램과 수익률에 대해 허위로 설명하는 대화글 캡처본.

자가 계속 증가할 공간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들은 금융위와 방심위 등에 신고를 했지만 구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토로하기도 했다. 방심위 불법유통정보에 사이트와 리딩방 관련해 불법성 신고를 했지만,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정보 내용만으로는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각하종결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무허가 금융업자라고 금융위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에 신고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유사투자자문업에 등록돼있지 않아 조치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라며 “동일한 사기 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코인 관련 범죄수사 자문을 담당했던 한 전문가는 “금융위에 수사 권한이 없더라도 코인 관련 주무부처인 만큼 투자

자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며 “주식 리딩방에는 적극 대처하면서 코인 리딩방에는 투자자 책임이라 떠넘기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투상품 아니라 제재 불가? 법 개정 안 안갯속 = 금융위는 코인 매매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 대차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법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관련한 대처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논의 중인데 저희도 좀 빨리 했으면 한다”라며 “코인에 대한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논의가 될텐데 하반기에 회의가 잘 열리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코인 리딩방 등 유사수신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해 투자자를 즉각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관석·박용진·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금융위는 홍성국 의원과 관련 내용을 논의, 정부안에 가깝게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리딩방 피해는 민생피해가 큰 부분이라 여야 이견 없이 정리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법안소위가 거의 잘 안 열렸고, 열려도 거의 오전에만 무정점 법안만 하고 끝내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중순에 다시 열릴텐데, 그때 우선순위로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사이버범죄 전문가는 “음란물의 경우 사이트만 보고도 불법성이 확실해 즉각 차단이 가능한데 유사수신 사기의 경우 사이트만 보고는 가늠이 어렵다”라며 “방심위나 정부의 즉각 차단도 어렵고, 영장 청구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직권말소를 즉각 발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소는 기자 gogumee@

## ‘가짜 거래소’ 만들어 사기 행각 해외IP 기반, 수사도 쉽지 않아

### 코인리딩방 사기 주의보

▶먼저 계속

팀장은 먹잇감이 확보되면 전체 회원을 상대로 한 단체 오픈카톡방을 폭파(대화방에서 모두 나감)했다. 투자자를 상대로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며 기망한 일당은 사이트를 바꿔가며 다른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 일당은 최소 3개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기재된 상호명과 본사 주소,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이트만 3개다. 이 중 한 사이트는 오픈카톡방과 같이 폭파됐다. 이투데이가 사이트에 명시된 본사 주소를 찾아간 결과, 해당 주소지에는 이들 일당과 관계없는 대기업 사육이 소재하고 있었다. 기업 관계자는 “일당으로 지목된 이들 중 내부 직원과 겹치는 이는 없다”며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B 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이



트가 해외 IP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모집계좌 또한 대외계좌로 확인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수사 과정이 길어지는 동안 사이트를 옮겨가며 피해자가 더 생길 텐데, 나도 나지만 이걸 어떻게 막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C 씨 또한 “다른 사이트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3주 지나도록 연락 한 통이 없는데 내 돈을 이미 몇 바퀴 먹지 않았겠느냐”고 말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피해자들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기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 측 역시 해당 법인의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보험업계 “철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 미래이나생명 ‘먹튀’ 논란

▶먼저 계속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의 갱신형 상품은 마진율이 높고 특히 10년 미만의 갱신형 상품은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은 철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해 동양생명 ABL생명과 같은 사례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양 ABL생명은 2016년 금융위원회가 중국 안방보험으로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안방보험그룹의 우사오후이(吳小暉) 회장이 긴급 체포돼 퇴임하면서 대주주 리스크 우려가 높아졌고, 결국 중국 정부가 위탁 경영을 맡게 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그나는 리스크와 투자 없이 한국 보험 시장에서 7조 원에 달

하는 이익을 쟁겨 나가는 것”이라며 “고용 승계와 복지, 위로금 등 이익 분담금의 대가도 분명히 치르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그나는 M&A 주관사로 김연장을 선정해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라이나생명 직원들의 고용승계, 복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 전이다

정치권에서도 금융당국과 국회가 외국계 자본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나해 프랑스 최대 보험그룹인 약사손해보험이 국내 철수를 시도했고 최근에는 일본계 금융 그룹 제이 트러스트가 JT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하는 등 외국계 기업의 국내 철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구조조정과 고율 배당만 지속하다 떠날 경우 국부 유출 논란이 또다시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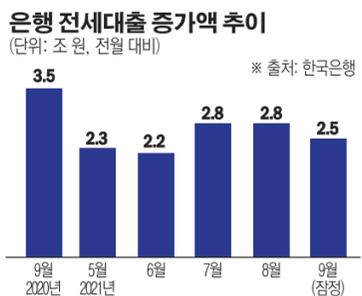
##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18일부터 재개”

### 전세대출 총량규제 제외로 여력 늘어... 다른 대출도 ‘숨통’ 트일 듯

은행권이 오는 1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 앞서 일부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영업점별 한도를 제한했던 은행들 역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도를 추가 배정하며 전세자금대출 정상화에 나섰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권은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정상화 준비에 착수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와 은행권의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 회의에서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규제에서 제외한다고 해 이르면 일부 은행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내부적으로 기안하고 전결을 받는 시간이 있으니 당장은 아니고 18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는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급하지 않은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심사 과정에서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4분기



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다음주부터 즉각 전세대출 재개에 나설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이 완전 중단됐던 농협은행의 경우 대출을 다시 재개할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영업점별 각계대출 한도 제한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상승세를 막아왔던 곳들은 영업점별 대출 한도 제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 9월부터 시행했던 영업점별 한도는 유지하되, 전세대출 한도는 추가로 배정하여 실수요자가 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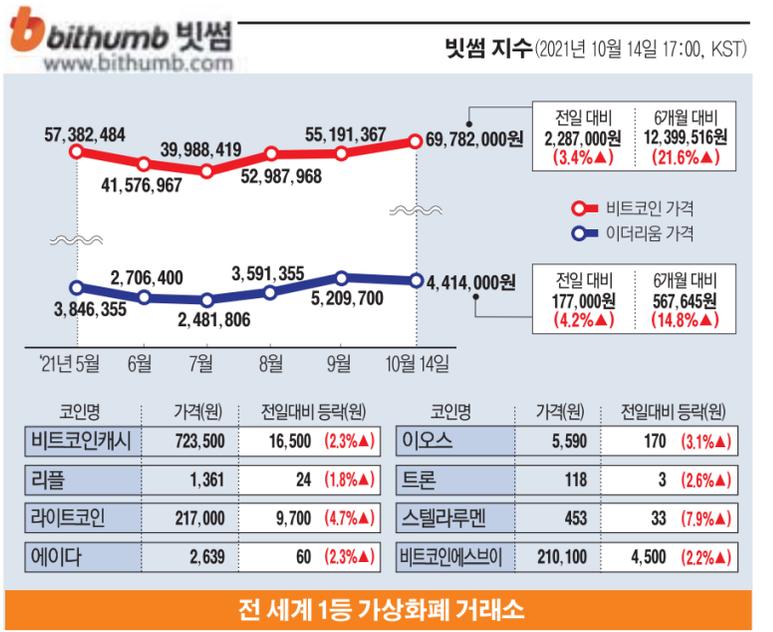
을 겪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 역시 “영업점별 한도 제한에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제외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고, (은행이) 준비되는 대로 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4분기까지 전세대출에 대해 총량관리규제에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대출 재개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이번 전세자금대출이 정상화되면서 다른 대출의 여력도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어온 주요인이 전세자금대출이었던 만큼 전세자금대출이 전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 다른 대출을 실행할 여유분이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억눌려왔던 대출 증가세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당초 올해 대출 증가분 중에서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이 제일 컸다”면서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대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김범근 기자 nova@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美 기술주’ 사랑 서학개미, 원픽은 ‘테슬라’

국내 투자자 해외 주식 보유액 897억 달러 ‘역대 최대’  
테슬라·애플·아마존 1~3위 굳건...거래액은 3.4% ‘뚝’

직장인 박 모(40) 씨는 지난 7월 미국 전가치 업체 테슬라 주식을 주당 643달러에 매수했다. 지난 1~2월에만 해도 평균 매입 단가는 793달러 정도였다. 테슬라 주가가 600달러대로 급락하자 ‘뿔타기’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에 들어갔다. 박 씨는 “초등학생 딸이 매일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즐기고 친구를 만나는 것을 보고 갈아탈까 했다. 선뜻 신기술에 투자한다는 게 불안했다”고 말했다. 그의 예상대로 테슬라는 810달러대로 올라섰다.

답답함일까, 현명함일까. 테슬라와 애플·아마존 등 당차 큰 나스닥 기술주와 대표주를 향한 ‘서학개미’ (해외 주식 투자자)의 전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 테슬라·애플·아마존 ‘솔림’ = 897억 달러(약 106조 원). 3분기 현재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 규모다(한

국예탁결제원 기준). 이전 최대였던 2분기(889억 달러)보다 0.9%가량 늘었다. ‘동학 개미’ 뻘치는 ‘서학 개미(해외 주식 투자자)’ 열풍의 결과다. 최근 서학 개미를 울고 웃긴 해외 종목은 뭘까.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테슬라(101억6400만 달러), 애플(39억3100만 달러), 아마존(20억1800만 달러)가 1~3위를 차지했다. 알파벳A(18억6200만 달러), 엔비디아(15억8000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15억7500만 달러), 인베스코(INVSC) QQQ ETF(10억69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외화주식 중에서 미국 주식 보관금액이 전 분기보다 3.1% 늘어난 556억1000만 달러(약 66조2000억 원)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다. 이어 홍콩 36억7000만 달러, 일본 30억7000만 달러, 중국 26억9000만

외화주식 보관금액 상위 10개 종목 (단위: 억 달러)

2021년 1분기 말				2021년 3분기 말			
순위	종목명	보유액	국가	순위	종목명	보유액	국가
1	테슬라	83.75	미국	1	테슬라	101.64	미국
2	애플	34.94	미국	2	애플	39.31	미국
3	아마존	15.78	미국	3	아마존	20.18	미국
4	엔비디아	10.75	미국	4	알파벳A	18.62	미국
5	알파벳A	10.43	미국	5	엔비디아	15.80	미국
6	마이크로소프트	10.01	미국	6	마이크로소프트	15.75	미국
7	INVSC QQQ ETF	6.89	미국	7	INVSC QQQ ETF	10.69	미국
8	항서제약	6.15	중국	8	SPDR S&P 500	8.15	미국
9	해브로	5.39	미국	9	PROSHARES ULTRAPRO QQQ	5.90	미국
10	넥슨	4.99	일본	10	보잉	5.46	미국

※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달러, 베트남 4억3000만 달러 순으로 외화 주식 보관금액이 많았다. 이중 중국 주식은 정부의 규제 강화, 헝가 사태 등 이슈로 보관 규모가 2분기보다 5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 밤잠 설치던 개미 감소세 = 직장인 최 모(29) 씨는 지난 7월 신용 대출로 1000만 원을 마련해 알파벳A 주식을 샀다. 지난 상반기 알파벳 주가가 크게 오르자 최 씨는 투자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한다. 최 씨는 매일 밤 미국 뉴욕 증시를 쳐다보던 습관도 버렸다. 단기 변동은 있겠지만, 묵혀두면 언젠간 주가가 올랐던 경험 때문이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장기 투자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해외 증시 상황을 지켜보느라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서학개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는 줄었다. 3분기 국내 투자자(개인+기관)의 해외 주

식 결제금액(매수+매도액)은 1001억 2000만 달러(약 119조1000억 원)로 3.4% 감소했다. 이는 분기 기준 결제금액 역대 최대치인 올해 1분기보다 36.5% 감소한 수치다. 외화 주식 결제액은 812억 6000만 달러로 전 분기보다 2.6% 증가했으나, 외화채권은 188억6000만 달러로 22.7% 감소했다.

3분기 외화 주식 결제금액 상위 종목은 나스닥 대형 기술주와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3위는 테슬라(47억5400만 달러), 애플(24억 달러), 아마존(20억6600만 달러) 순이었다. 다만, 테슬라의 결제금액은 전 분기(59억 달러)보다 19.5% 감소했으며 매도금액이 매수금액을 추월해 4억 달러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해외 주식은 현지 통화로 투자해야 해서 환 손실 위험이 있고,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면 조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산투자자라고 조언한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 SK(주), 14兆 투자해 친환경 키운다

그린사업 중장기 성장 전략

SK그룹의 투자 전문 지주사인 SK(주)와 자회사들이 2025년까지 1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그린(친환경) 사업을 육성한다.

SK(주)는 14일 기관투자자와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SK 그린 사업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SK(주)는 “고성장 그린 테크(기술)를 선점하고 사업화해 기업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은실가스와 오염물질 감축에 속도를 내 SK그룹과 국가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K(주)는 대체에너지에 9조5000억 원, 지속 가능 식품에 3000억 원, 클린 솔루션에 4조 원, CO2(이산화탄소) 처리에 6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소·연료전지에 4조 4000억 원, 재생에너지에 3조7000억 원, 에너지솔루션에 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내 수소연료전지 생산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SK(주)는 세계 최초로 정복수소 상업화에 성공한 미국 모놀리스와 이르면 내년 초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해 국내 정복수소 시장 선점에 나선다.

지속 가능 식품과 관련한 유망 업체에 투자해 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도 구축한다. SK(주)는 지난 7월 중국 식음료(F&B) 기업인 조이비오 그룹과 1000억 원 규모의 대체식품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대체 단백질 선도기업인 미국 퍼펙트데이에 약 650억 원(5500만 달러)을 추가 투자하는 등 글로벌 대체식품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클린 솔루션 분야와 관련해서는 소각·매립·수처리 사업, 폐기물 처리 기술 투자 등을 추진한다.

올해 그린사업에 2조7000억 원을 투자한 SK(주)는 투자 규모를 점차 확대해 글로벌 종합 그린사업 전문 투자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SK(주)가 현재 보유한 그린 사업 관련 투자기업 자본 가치는 현재 6조 원에서 2025년 35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인아 기자 ljh@

## 나재철 “알투플러스로 스마트 투자자 육성”

금융투자 교육 ‘알투...’ 오픈 AI 기반 맞춤형 콘텐츠 제공

나재철(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행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투자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 교육을 강조했다.

‘알투플러스’는 전 국민 대상으로 금융투자 교육을 지원하는 무료 교육플랫폼이다. ‘알고하는 투자’의 앞 글자와 플러스의 합성어인 ‘알투플러스’는 금융투자의 기본 소양을 학습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기반으로 개인의 투자 역량을 종합적으로 측정·진단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자신만의 투자원칙과 방법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알투플러스는 2개의 진단 서비스(GI진단, 미니진단)와 2개의 학습 도구(금융투자 콘텐츠몰, 표준교재)로 구성됐다.

나 회장은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증권사 직원은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는 자본시장 종사자에 대한 대중의 편견이 업계의 당면 과제”라고 말하며 알투 플러스 개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스스로 강한 투자자여야 금융에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속도를 높이면 합리적인 시장 참가자, 수준 높은 인프라,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금융회사의 정보에 의존했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소비자의 독립적인 정보습득과 취사선택 능력이 중요해졌다”며 “스스로 찾고 집행하고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강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알투플러스에 대해 “투자역량을 진단받고 맞춤형 학습을 진단받을 수 있는 데다,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접목한 만큼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더욱 정확해지는 특성이 있다”며 “서비스 초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발전된 서비스로 진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방법은 스마트 투자자를 많이 만드는 것이며 여기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희 수습기자 nancho0907@

## 메타버스 ETF 4종 상장 에프앤가이드 지수 추종

국내 첫 메타버스 ETF 4종이 동시에 상장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자산운용 ‘KODEX K-메타버스액티브’,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Fn 메타버스’, 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Fn K-메타버스MZ’, KB자산운용 ‘KBSTAR iSelect 메타버스’ 등 4종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Universe)의 합성어로, 주로 온라인 등 가상이지만 현실세계와 같이 사회활동이나 경제적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최근 5G 기술의 상용화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에 따라 메타버스 사업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메타버스ETF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과 관련된 하드웨어, 콘텐츠, 플랫폼 등 메타버스 관련 키워드를 점수로 매긴 상위 종목 편입하고 있으며, 네이버, SK텔레콤, 와이즈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에 상장된 국내 최초의 메타버스ETF 4종 중 3종이 ‘에프앤가이드’의 메타버스 지수를 기초지수로 활용하고, KB자산운용의 상품은 iSelect 메타버스 지수를 추종한다.

에프앤가이드 관계자는 “테마형ETF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흐름에 대응해 에프앤가이드는 다양한 테마지수를 개발하고 적시에 발표하면서 ETF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한국투자증권·강소기업협 상생협력 MOU

회원사에 자금 조달 솔루션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3일 한국강소기업협회와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은 강소기업협회와 동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자산규모에 맞는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협회 회원사에 대한 IB그룹 △자금 조달 등 금융 솔루션 제공 및 투자 유치 지원 △IPO·증자·분할·합병 지원 △대주주·경영진 자산관리 및 기업승계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의 초고액자산가 전담 조직인 GWM, 법인 관련 업무에 특화된 금융센터 등도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과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입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힘을 합친다는 계획이다.



배영규(왼쪽) 한국투자증권 IB그룹장과 나중호 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이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투자증권

배영규 IB그룹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포괄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물론,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아 기자 ljh@

## 탄소중립 준비 가장 잘 된 국가 ‘노르웨이’

KPMG ‘탄소중립 준비지수’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 준비가 가장 잘 된 국가로는 노르웨이가 선정됐으며 한국은 전체 11위에 올랐다.

14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발간한 ‘탄소중립 준비지수(Net Zero Readiness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 역량 평가에서 전 세계 32개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탄소중립 준비지수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요인들을 활용해 32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비교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별 준비 역량을 평가한 지표로, 전 세계에서 처음 발표됐

다고 KPMG는 설명했다.

현재까지의 탄소 중립 준비 상황 등을 기반으로 성과 상위 국가(25개국)와 탈탄소화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관심 국가(7개국)로 분류했다.

탄소중립 준비가 가장 잘 된 국가로는 노르웨이가 뽑혔다.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 중 한 곳이지만, 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정책에 대한 민간과 공공 투자 1위에 올랐다. 이어 영국(2위), 스웨덴(3위), 덴마크(4위) 등 순이다.

관심 국가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니이지리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등이 뽑혔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 5분이면 '거실 정원' 세팅... '꽃·채소 재배' 초보도 OK

## 식물재배 新가전 'LG 락온' 직접 체험해보니

'반려식물, 플랜테리어' 집안에 들인 푸릇푸릇한 식물이 가진 힘이 단순 인테리어 효과를 넘어서, 정서 안정에까지 도움을 준다는 '식물 애호가'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LG전자가 다양한 식물을 누구나 손쉽게 키우고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식물 생활가전 'LG 락온(LG tiium)'을 14일 출시했다. 신제품 브랜드 명인 '락온'은 식물과 함께 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싹을 락온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서울 성수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플라츠에선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행사가 열렸다. 네이처 그린, 네이처 베이 지 등 LG 오브제 컬렉션 대표 색상을 입은 LG 락온의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직사각형의 씨앗키트엔 아가자기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 보는 맛을 더했다. 제품 색상과 제품 내부의 꽃과 식물이 어우러지니 정원 미니처를 보는 기분이 들었다.

지난해 초 세계 최대 IT·가전전시회인 CES 2020에서 공개됐던 시제품은 양면형 냉장고 형태였는데 LG 락온 크기는 소형

한 번에 6개 씨앗키트 재배 가능 자동 급수·온도 조절로 관리 쉬워 소음도 일반냉장고 수준으로 적어

와인냉장고 정도다.

LG전자 관계자는 "시장조사 과정에서 국내 주택구조와 소비자들의 수요를 취합해 제품 개발 과정에서 크기를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제품 크기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려있다.

씨앗, 배지 등 식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가 일체형으로 담긴 씨앗키트를 제품 안에 넣고, 제품 하단에 있는 물탱크에 물과 식물 영양제를 넣고 문을 닫으면 끝이다. 아무리 손이 느려도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소음도 일반 냉장고가 내는 수준으로 크지 않다. 이후엔 물 보충 일람이 울릴 때만 물을 부어주면 된다. 재배를 처음 시작할 땐 물 보충 기간도 7일로 길다. 계절과 관계없이 채소는 약 4주, 허브는 약 6주 후 수확이 가능하다. 꽃 씨앗은 8주가 지나면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신상윤 LG전자 스프라웃 컴퍼니 대표가 14일 'LG 락온' 출시 행사에서 신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최대 기를 수 있는 모종 개수도 60개로 적지 않다. 각 선반에 씨앗키트가 3개씩 들어가므로 한 번에 총 6개의 씨앗키트를 키울 수 있다. 락온은 LG 디오스 냉장고

의 핵심 기술인 인버터 컴프레서로 낮과 밤별로 식물이 자라기 좋은 온도를 각각 구현하고, LG 퓨리케어 정수기의 급수 제어 기술을 활용한 순환급수 시스템으로 하

루에 8번 자동으로 물을 준다.

LG전자 산하 스프라웃 컴퍼니 신상윤 대표는 "식물을 키우는 것은 어렵다"라는 부담을 느끼는 고객의 페인포인트에 집중했다"라며 "LG 락온으로 식물을 기르면 흙 때문에 집이 더럽혀질 일도, 식물 때문에 벌레가 꼬일 일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제품 출시와 함께 △비올라 등 꽃 3종 △비타민, 썬썬, 겨자채 등 채소 12종 △페퍼민트, 스피어민트 등 허브 5종을 포함한 총 20종의 씨앗키트를 선보였는데, 향후 종류를 늘릴 계획이다. LG 락온에서 성장한 식물을 옮겨 키울 수 있는 'LG 락온 미니'도 출시 준비 중이다. LG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식물재배기 시장에서 몸집을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기와 씨앗을 묶어 파는 렌탈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사업 확장 가능성이 커서다. 씨앗키트 월 가격은 채소류 3만 원(이하 키트 3개 기준), 허브류 3만6000원, 화훼류 4만2000원이다. LG 락온의 가격은 출고가 기준 149만 원이다. LG전자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15일부터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LG 락온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글/사진 노우리 기자 we1228@

## 금강 두른 럭셔리 '갤Z폴드3' 출시

# 삼성 '갤럭시 무덤' 中서 부활 꿈꾼다

갤Z폴드3 기반 'W22 5G' 공개 최상위층 맞춤형 고급화 전략 현지 점유율 확대 기대감 높여



삼성전자가 중국서 출시한 'W22 5G'.

갤럭시의 무덤으로 불렸던 중국시장에서 '갤럭시Z'를 중심으로 부활을 노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중국 전용 초고가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을 내놨다.

'W22 5G'란 이름의 이 제품은 갤럭시Z 폴드3를 기반으로 했으며, 1만6999위안(약 313만 원)으로 갤럭시Z 3(1만4999위안)보다 2000위안(약 37만 원) 가량 비싸다. 고급 브랜드로 이미지를 굳히며, 점유율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중국 항저우에서 현지 이동통신업체인 차이나텔레콤과 W22 5G 출시행사를 열고, 14일부

터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이 제품은 중국판 하이엔드 '갤럭시Z 폴드3'로, 현지 특화 브랜드인 '심계천하(心繫天下)'라는 사람이 세상을 걱정한다' 시리즈다.

이번에 출시된 'W22 5G'는 갤럭시Z 폴드3와 외형, 제품 사양 등이 동일하다. 고가 제품답게 중국인들이 부의 상징으로 여기는 황금색상을 강조하고 후면에 심계천하 로고를 달았다. 휴대폰 케이스도 특별한 디자인 과정을 거쳤

다. 황금 인장이 있는 선물 상자 스타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다. 가격은 전작 'W21'의 1만9999위안보다는 3000위안(약 55만 원) 낮아졌지만, 1만6999위안으로 313만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1위 스마트폰 업체지만, 중국 시장 점유율은 약 1%로 극히 미미하다. 애플을 비롯해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 현지 브랜드에 밀려 고전 중이다.

다만 올 하반기 갤럭시Z폴드3와 Z플립3를 출시한 이후, 꺾이지 않던 중국 시장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국 내에서 갤럭시Z 폴드3와 갤럭시Z 플립3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며, 사전예약에서만 100만대가 넘게 팔렸다. 특히 화웨이 메이트X 시리즈 외에는 현지 폴더블폰 시장에서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점도 전망을 밝게 하는 부분이다. 송영록 기자 syr@

## "車 반도체대란 최악의 상황 끝나"

호세 무뇨스 현대차 북미 사장 "4분기 계획대로 차량 납품 목표 그룹 반도체 자체개발·생산 원해"



폼 계열 회사인 현대모비스가 자체 반도체 개발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현대모비스가 "자동차용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라고 공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가 반도체 수급 대란이 저점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대란을 계기로 '현대모비스의 반도체 자체 생산'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14일 현대차그룹과 로이터 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 운영책임자(COO·사진) 겸 북미권역 본부장(사장)은 13일(현지시간)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며 "지난 8~9월이 가장 힘든 달이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반도체 부족에 따른 극심한 생산 차질이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호세 사장은 "반도체 칩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현대차그룹이 직접 칩을 생산하기를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도체 개발에는 "많은 투자와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라며 "현대차의 자동차 부

품 계열 회사인 현대모비스가 자체 반도체 개발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현대모비스가 "자동차용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라고 공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모비스는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에 자리한 기술연구소에서 '현대모비스 전략 및 신기술 발표 콘퍼런스'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모비스는 반도체 수급 부족과 관련해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의 '내재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수경 기획부부장(부사장)은 "앞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플랫폼과 시스템 선도 기업으로 미래 위상을 확보하고, 미래 핵심역량을 활용한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뇨스 사장은 현대차가 4분기에 애초 계획과 같은 수준의 차량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생산 차질 물량의 일부도 상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中企 판로 개척' 포스코인터 중기부 '자상한 기업' 선정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신산업분야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부가 주관하는 '자상한 기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자상한 기업은 전통적인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에 넘어서,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의 강점을 미거래기업·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 사유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철강, 에너지, 식량 등 종합사업 회사로서 걸려온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앞장서며, 상사 최초로 ESG채권을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다솜 수습기자 citizen@

## LX하우시스 '제네시스9 오브제 살롱' 출시

LG오브제컬렉션 페닉스 소재 적용

LX하우시스는 LG전자 오브제컬렉션의 페닉스(FENIX) 소재를 적용한 신제품 'LX Z:IN 인테리어 키친 제네시스9 오브제 살롱'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페닉스는 무광의 특성과 손자국이나 얼룩이 잘 묻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고급스러운 색감을 구현하고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에 강하며 LG 오브제컬렉션 냉장고에 적용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제네시스9 오브제 살롱은 LX하우시스가 올해 선보인 키친 시리즈 '제네시스9'의 주방기구 문에 LG전자의 오브제컬렉션과 같은 페닉스 소재를 적용한 제품이다. 화이트, 보타닉, 샌드, 머드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했다.



LX하우시스가 새로 출시한 주방기구 제품 'LX Z:IN 인테리어 키친 제네시스9 오브제 살롱'과 LG전자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적용한 주방. 사진제공 LX하우시스

LX하우시스는 앞으로 LG전자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양사 제품에 동시에 적용할 색상, 디자인, 소재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양사는 내달 공동으로 개발한 색상을 적용한 LG 오브제컬렉션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 '제네시스 엑스' 콘셉트카 실물 공개 로드쇼

미래 전기차 디자인 방향성 제시

제네시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디뮤지엄(D MUSEUM)'에서 '제네시스 엑스(Genesis X) 로드쇼'를 개최한다.

제네시스 엑스는 제네시스가 3월 공개한 전기차 기반의 GT(Gran Turismo) 콘셉트카다. 제네시스의 핵심 디자인 요소인 '두 줄'을 차량 내·외장 곳곳을 비롯해 전기 충전구에도 적용하며 향후 출시할 전기차의 디자인 방향성을 보여준다.

특히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는 제네시스 엑스에 적용돼 주행의 시작과 끝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형상의 전자 변속기 '크리스탈 스피어'를 통해 시작과 끝을



제네시스 콘셉트카 '제네시스 엑스'.

고객에게 알린다.

제네시스는 서울 전시가 끝난 뒤 △제주 구좌읍 소재 '공백' (10월 29일 ~ 11월 7일)과 △부산시 영도구 소재 '피아크' (11월 12일 ~ 21일)에서 로드쇼를 이어간다. 전시를 관람하고자 하는 고객은 14일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으며 방문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유창욱 기자 woogi@

# 삼성전자 '폰카로 코로나 판별' 벤처 등 5곳 창업 지원

스타트업 디바이전, 진단키트 결과 촬영 통한 감염여부 판독기술 개발  
1년간 연구비·운영 자율권 등 지급... 결과물 따라 파격 인센티브 제공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사업부의 바이오,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모여 설립한 '디아비전'은 스마트폰 카메라와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판독 솔루션을 개발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진단키트의 결과를 촬영하면 디지털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양을 수치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뢰성 높게 판독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스타트업으로 분사했다.

삼성전자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인사이드'의 하반기 우수 과제 5개를 선정해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아비전의 이미지 인식 기술 기반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판독 솔루션은 코로나19가 국내외에서 빠르게 확산하던 지난해 4월 진행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직원 대토론회'에 제안된 아이디어 중 하나다.

삼성전자 임직원 집단지성시스템 '모자이크'에서 열린 대토론회에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 아이디어 1620건을 제시했다. 그중 하나가 지금의 디아비전으로 발전했다.

디아비전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의 경우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감염 여부를 맨눈으로 판별하다 보니 결과가 흐릿하게 나타나면 오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미국 식품의약처(FDA) 등에서는 정확한 판독을 위해 검사 장비를 함께 배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비싸고 사용법이 복잡해 가정이나 소규모 병·의원, 약국 등에서는 보유하기가 어렵다.

디아비전은 이 문제를 스마트폰과 이미지 분석 기술로 해결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진단키트의 결과를 촬영하면 자체 개발한 디지털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양을 수치화하기 때



이미지 인식 기술 기반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판독 솔루션을 개발한 '디아비전' 개발자들이 앱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문에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까지 판별할 수 있다. 국내 의료기관 임상시험 결과 기존 육안 판별보다 정확도(민감도, 특이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검증됐다.

디아비전의 솔루션은 코로나19 진단뿐만 아니라, 독감 등 백신 접종 이후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중화항체 진단 키트에도 적용이 가능해 스피노프 전부터 진단

키트 제조사 등 바이오 업계에서 협력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디아비전을 비롯해 △가시광 통신 기술을 활용한 무인 매장 혁신 솔루션 '치즈에이드(Cheeseade)' △동작 인식 기술 기반 AI 댄스 게임 플랫폼 '구스랩(GOOSE LAB)' △나만의 신선한 술을 만드는 홈 브루잉 솔루션 '부즈앤버즈

(Booze&Buzz)' △개인 맞춤형 족부 보조기 제작 솔루션 '로고스 바이오일렉트로닉스(Logos Bioelectronics)' 등 총 5개 과제를 선정해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스타트업은 1년간 현업을 떠나 아이디어 구현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독립된 연구 공간과 함께 연구비, 과제 운영 자율권 등을 지원받는다. 과제 결과물이 사내에서 각종 사업에 활용될 경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C랩 인사이드'는 삼성전자가 창의적 조직 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 구현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339개 과제에 1395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이번 5개 스타트업을 포함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임직원 199명이 독립해 57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했다. 국내 스타트업의 3년 차 평균 생존율은 41.5%, 5년 차 평균 생존율은 29.2%이지만 C랩 스피노프 스타트업의 3년 차 생존율은 98%, 5년 차 생존율은 65%를 기록하며 국내 평균 수준을 훌쩍 넘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포스코그룹〉

## 최정우 회장, 세계철강협회 회장단 맡는다

내년 10월까지 부회장 맡다 이후 1년간 회장직 수행

최정우(사진) 포스코그룹 회장이 세계 철강협회 회장단에 이름을 올렸다.

14일 포스코는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인 최정우 회장이 전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회원사 연례회의에서 회장단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등 총 3인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으로 첫째 부회장직을 1년간 맡은 이후 다음 1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한다. 마지막 3년 차에는 다시 1년간 부회장직을 이행한다.

최 회장은 내년 10월 세계철강협회 총회 때까지 1년 동안 신입 부회장 역할을 맡는다. 내년 10월부터 1년은 회장으로서 전 세계 철강업계를 이끌게 된다. 최 회장은 회장단 취임 1년 차에 인도 JSW의 사잔진달 회장, 중국 허북강철집단 CEO인 우용 부회장 등과 호흡을 맞춘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6일 철강업계 최초로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논의하는 'HyIS 포럼'을 성공적으로 주최하는 등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목받았다.

한편, 포스코는 이날 연례회의에서 함께 발표된 제12회 스틸리 어워드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

스티리 어워드는 2010년부터 매년 세계



철강협회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철강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우수 철강사에 수여하는 상이다. 크게 △기술혁신 △지속가능성 △전 과정 평가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포스코는 올해 총 5개 부문에서 최종 후보에 올라 기술혁신,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등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기술혁신 부문에서는 이산화탄소 저감이 가능한 '기가스틸 롤스탬핑 신성형공법' 세계 최초 개발 및 국내외 협업을 통한 양산화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초고강도 경량강판인 기가 스틸은 1mm<sup>2</sup> 면적당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 내구성과 안전성이 뛰어나고, 동급의 타 소재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올해 3월 포항에 개관한 '파크(Park) 1538'을 중심으로 한 온·오프라인 연계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기술력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담아낸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웃으로 재탄생한 자동차 폐기물 현대차 '업사이클링 제품' 공개

현대자동차가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공감하는 글로벌 패션 편집숍 분더샵(BOONTHESHOP), 레클레어(L'Eclairer)와 함께 '리스타일(Re:Style) 2021'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자동차 소재를 업사이클링한 제품을 공개했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다시 사용하고, 다시 생각하는, 새로운 스타일'이라는 의미를 지닌 리스타일 프로젝트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동차와 패션의 이색 협업을 통해 친환경 업사이클링 트렌드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유명 패션 편집숍인 분더샵, 레

클레어와 협업해 자동차 폐기물과 아이오닉 5의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재킷·후드·바지 등 의상 12종을 선보인다. 제품은 블랙과 카키 색상의 원단에 탈부착 가능한 포켓과 벨트로 기능성을 더해 역동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분더샵과 레클레어는 14일부터 각각 서울과 파리의 오프라인 매장과 에스아이빌리지 및 레클레어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수익금은 향후 현대차가 추진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월드와이드 유튜브와 현대라이프스타일 인스타그램 등 SNS에 배우배두나와 구교환, 버추얼 인플루언서 슈두(Shudu)가 친환경 업사이클링 의상을 입은 영상을 올리며 이목을 끌고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시니어 품격을 위한 매거진

#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 10월호 발매

COVER STORY

### 워드 코로나, 면역력 키우기

- PART1 워드 코로나 시대 면역과 함께 살기
- PART2 코로나 면역력, 스마트 숙면
- PART3 면역력에 관한 오해와 진실
- PART4 자연 그대로를 담은, 가공하지 않은 식품
- PART5 한방으로 본 자기면역질환

신라보가 만난 사람

새내기 시니어 모델 최희정 열정과 숨겨진 끼로 살아가는 인생 향해

가든디자이너 오경아 "정원은 영원하지 않아서 더 아름답다"

전통정원의미 남원 광한루원

습기로운 투자생활 행동경제학을 통한 성공적인 투자습관 만들기

참 좋은 시절

책주 따라 읽을 줄인 걸 위의 작가 김주영

"내 인생의 학교, 내 소설의 도당은 장터"

생활 속 법률 상식

합리적 노후를 위한 변액보험

구해된 부동산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노린 여행

추사(秋史), 가을 이야기가 담긴 와이너리

경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stoday.co.kr

# 내달 국내 상륙 디즈니+ '월 9900원·4K UHD' 승부수

디즈니·마블·스타워즈 등 1만6000회차 콘텐츠 방대  
LG U+·KT와 협업 구축... '콘텐츠·서비스' 총공세

월트디즈니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가 출시를 한 달 앞둔 가운데, 방대한 콘텐츠와 고품질 서비스를 통해 국내 구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국내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다양한 성장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는 14일 미디어 데이 행사를 열고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비즈니스 전략 및 서비스 주요 기능을 소개했다.

다음 달 12일 정식 출범하는 디즈니플러

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다양한 지식 재산권(IP)을 바탕으로 한 1만6000회차 이상의 방대한 콘텐츠다. 디즈니플러스는 디즈니·픽사·마블·스타워즈 등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애니메이션과 영화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스타'에서는 미국 ABC, 20세기 텔레비전, 20세기 스튜디오, 서치라이트 픽처스 등이 제작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디즈니는 오리지널 및 한국 콘텐츠를 통해 국내 콘텐츠 제작 업계와 상생하는 등



오상호 월트디즈니 코리아 대표가 14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시에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금액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디즈니가 아시아·태평양(APAC) 콘텐츠 쇼케이스를 통해 최초 공개한 아태지

역 신규 콘텐츠는 18개의 오리지널 작품을 포함, 20개 이상이다. 이 중 7편이 한국 콘텐츠로,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의 스피오프 프로그램인 '런닝맨: 뛰는 놈 위에 노는 놈', 드라마 '설강화', 웹툰 원작 드라마 '무빙' 등이 포함됐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도 예고했다. 앞서 디즈니는 LG유플러스와 IPTV 및 모바일에서, KT와 모바일에서 협력하며 시청 편의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디즈니는 국내 소비자가 편리하게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높은 서비스 품질도 경쟁력 중 하나다. 디즈니플러스는 월 9900원·연간 9만 9000원의 구독료를 내면 최대 4개 기기 동시접속, 최대 10개의 모바일 기기에서 4K

UHD 화질 수준의 콘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시청 제한, '그룹 위치' 등 다양한 기능도 탑재했다.

콘텐츠와 서비스 품질을 양대 경쟁력으로 갖춘 디즈니플러스는 한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장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대표는 "디즈니는 지난 30년간 국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치며 한국 소비자에게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전달하고 누구나 뛰어나고 독창적인 스토리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번 디즈니플러스 출시로 한국 파트너사 및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오랜 기간 국내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 온 디즈니의 노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 카카오모빌리티 비운 자리 티맵·타다 경쟁

티맵, 택시·주유 구독서비스 타다, 가맹 사업 확장에 올인

'뜨거운 감자'였던 모빌리티 산업이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압도적일 줄만 알았던 선두가 자리를 비운 와중에 전방위 구독 서비스와 신산업과의 맞선 전략을 내세운 다른 사업자가 몸집을 경쟁적으로 불리고 있다.

티맵모빌리티는 택시부터 주유,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모은 구독 서비스 'TMAP(티맵)플러스 프리미엄'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티맵플러스프리미엄은 택시와 주차, 주유부터 렌터카·공유 전동킥보드·보험 등 모빌리티 전방위 혜택을 담은 구독 상품이다. 3만 원 상당의 혜택을 월 9900원에 누릴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으로, 앞서 8월 SK텔레콤의 'T우주' 플랫폼을 통해 선보인 베이직 상품 대비 구성을 강화했다.

티맵이 본격적인 판세 뒤집기에 나선 모양새다. 해당 프리미엄 서비스는 티맵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독점 서비스다. 내비게이션을 바탕으로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데 이어 구독 서비스까지 더하며 층층 고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종갑 티맵모빌리티 티맵라이프그룹 그룹장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TMAP플러스 프리미엄 상품 혜택을 꾸준히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제 세상 모든 이동 수단의 연결고리가 돼 모빌리티 라이프를 티맵플러스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의 패권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모습이다. 산업 지형도 변했다. 최근 모빌리티 기업 '타다'는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버리퍼블리카에 인수됐다. 타다 운영사인 VCNC 지분 60%를 토스가 인수하면서 모빌리티와 핀테크 산업이 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인 전망이 나온다.

타다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가맹 사업 확장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리뉴얼을 마친 새로운 타다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힌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것인 전망도 우세하다. 운행 대수를 늘리고 서비스도 손질해 고객을 붙잡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인택시 기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며 승합차 기반 대형 택시를 운행할 기사가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카니발 렌터카를 이용해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던 타다의 초기 사업모델과 비슷한 모습이다. 하지만 렌터카가 아닌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해, 기존 '카카오 밴드' 서비스와 같은 형태다.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 출석한 류승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당장 어떤 방법을 말하진 못하겠지만, 지속적 논의를 통해 도출한 수수료를 실제 절감하는 것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을 통해 상생을 모색하겠다"며 상생안을 한 달 내로 내놓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산업 전반이 변화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두를 달리던 카카오모빌리티가 멈췄고 타다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등 (산업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고객은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업계는 점유율 등이 바뀔 수 있는 때"라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 비대면 타고 SW 기업 급성장 우아한형제들 매출 '1조 클럽'

매출 총액 전년 대비 16.6% ↑  
종사자 24.4% 늘어 16.5만명

코로나19 장기화에 소프트웨어(SW) 기업의 매출이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재택근무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협회)는 14일 '2021년 SW전역클럽'을 발표하면서 작년 기준 300억 원 이상의 연 매출을 올린 기업은 326개사로 전년 대비 14.8% 늘었고 매출 총액은 86조93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다고 밝혔다.

SW전역클럽은 소프트웨어사업기업의 전년도 매출액 규모를 1조, 5000억, 1000억 등 구간별로 SW협회가 집계하는 자료다.

이번 'SW 1조 클럽'은 13곳으로 전년 대비 1곳 늘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IT서비스 기업 SK C&C가 새로 추가되고 온라인게임 기업 네오플레이 빠졌다. 매출 규모 순으로 △삼성SDS △네이버 △다우데이터 △카카오 △LG CNS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SK

C&C △NHN △크래프톤 △현대오토에버 △우아한형제들 등이 1조 클럽 기업이다.

'5000억 클럽'에는 4개, '1000억 클럽'의 9개 기업이 매출 증가 등의 사유로 새롭게 상위 클럽에 진입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기업과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관련 기업들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약 84%로 전체 매출 증가율인 16.6%를 크게 웃돌았다.

작년에 이어 클라우드 분야 강세는 계속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클라우드 관리기업(MSP)이 포함된 '건설링' 업종의 매출 합계가 1조28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2% 증가했다.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 기업이 포함된 'IT 인프라SW' 업종의 매출 상승률은 전년 대비 28.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종사자 수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2020년 기준 종사자 수 합계는 16만5833명으로 전년 대비 24.4% 증가했다. 클럽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1조 클럽이 약 6만 명으로 전년 대비 62.5% 증가했다. 5000억 클럽은 17.9%, 1000억 클럽은 4.9% 늘어나 전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다.

심민규 수습기자 wildboar@

## KT, 주문 서비스 '스몰오더' 출시 "소상공인 지원"

챗봇 통해 매장 밖에서 주문

KT가 비대면 주문 서비스를 시작한다. KT는 이 서비스를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으로 키운다는 계획도 세웠다.

KT는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 서비스 '스몰오더'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몰오더'는 차세대 문자 메시지 서비스(리치커뮤니케이션서비스, RCS)인 채팅플러스의 챗봇을 통해 매장 밖에서도 비대면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스마트폰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에 적용된 채팅플러스 챗봇을 통해 미리 음료를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고객은 음료 구매를 위해 기다리지 않아도 돼 시간이 절약되며, 소상공인은 주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별도의 대면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매장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스몰오더'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의 챗봇 탭에서 스몰오더 선택 후 원하는 매장을 선택해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다. 우선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KT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고, 타 통신사



한 카페에서 고객이 KT '스몰오더'를 통해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가입자에게는 올해 중 개방할 예정이다.

KT는 전국에 6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중형 카페 프랜차이즈 커피메이와 스몰오더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커피메이 34개 매장에서 스몰오더를 통한 주문이 가능하다. 향후 KT는 커피메이 브랜드 전용의 스몰오더 솔루션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KT와 커피메이는 커피 프랜차이즈 상품에 대한 구독형 통신서비스를 공동 발굴하고 비대면 주문 활성화를 통한 중이영수증 축소, 최근 커피 매장의 트렌드인 '다회

용 컵' 이용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T는 스몰오더 입점 매장 확대를 위해 서비스 시작 후 3개월 동안 입점 매장에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며, 이후에는 월정액 요금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비스 가입은 KT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KT는 '스몰오더' 서비스 제공 업종을 카페 외에 셀러드, 도시락, 샌드위치 등으로 늘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비대면 주문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위메이드 '미르4' 동시접속 80만명 돌파

위메이드는 모바일 MMORPG '미르4' 글로벌이 동시 접속자 수 80만 명을 돌파하며 미르 지식재산권(IP) 역사에 새로운 대기록을 썼다고 14일 밝혔다.

미르4가 달성한 동시접속자 수 80만 명은 대표작인 '미르의 전설2'가 2005년 달성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미르의 전설2는 세계 최초 동시접속자 수 80만 명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며 중국 국민 게임에 등극한 바 있다.

미르4는 지난해 11월 국내에 출시한 뒤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해 전 세계 170여 개국, 12개 언어로 정식 출시했다.

글로벌 버전은 게임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 미르4는 블록체인 기술로 게임 속 재화인 '혹철'을 암호화체인 '드레이크'로 교환하고, 이를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로 바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800,000 concurrent users

수 있다. 글로벌 버전 출시 당시 아시아 서버 8개, 유럽 서버 2개, 북미 서버 1개 등 총 11개 서버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출시 이후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정식 서비스 36일 만에 총 서버 수는 100개를 넘어섰다. 현재는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 서버 64개, 인도 서버 6개, 유럽 서버 13개, 남미 서버 21개, 북미 서버 32개 등 총 136개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 '주부'가 당신의 마지막 직함이 되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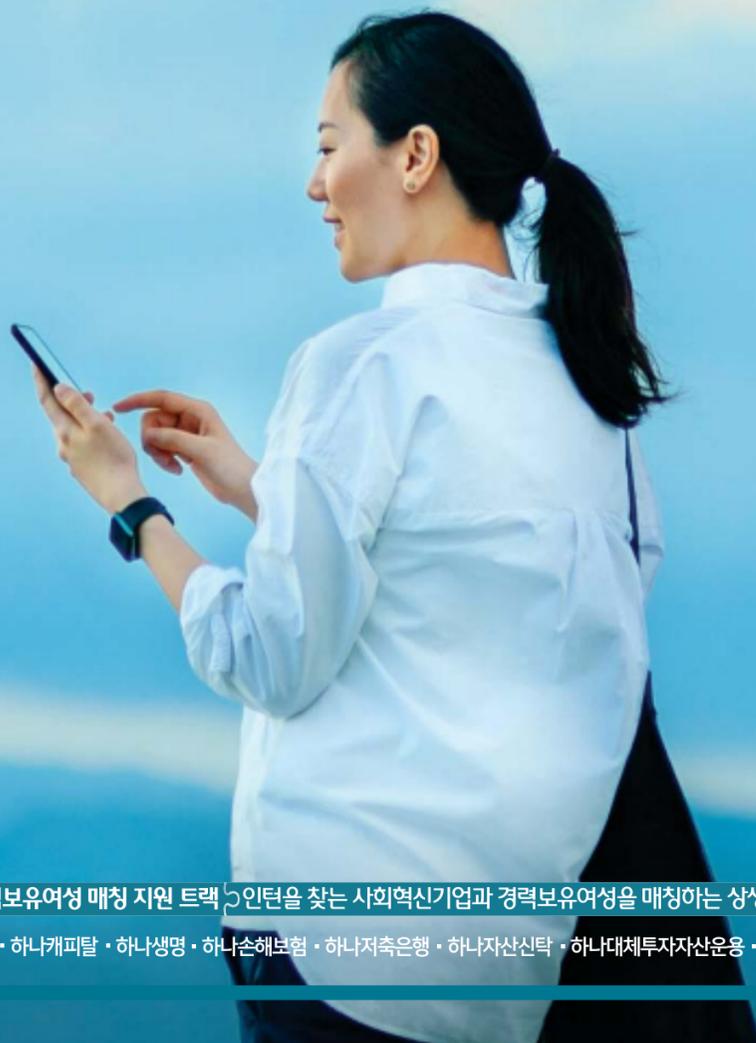
아내에서 다시 매니저로

엄마에서 다시 플래너로

경력이 지어준 이름을 되찾길 바라는

여성들의 다시 쓰는 이력서를 응원합니다

**발전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경력보유여성 매칭 지원 트랙 5인턴을 찾는 사회혁신기업과 경력보유여성을 매칭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하림 '오징어 게임' 이정재 앞세워 라면시장 출사표

20시간 끓인 육수로 국물맛 살린 'The미식 장인라면' 출시  
김홍국 회장 직접 소개... '오징어 게임' 특수 타고 해외 공략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열연한 배우 이정재를 내세워 라면시장에 출사표를 냈다.

라면 전통감자 농심, 오투기 등 버티고 있는 국내 라면시장에서 후발주자인 하림이 강력한 모델을 활용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 신드롬을 일으키겠다는 구상이다. 라면 시장은 국내에서 경쟁이 더 치열한 만큼 차별화 전략이 하림의 신사업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림은 신개념 육수라면 'The미식 장인라면' (이하 장인라면)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인라면은 사골과 소고기, 닭고기 등 신선한 육류 재료와 버섯, 양파, 마늘 등 각종 양념채소를 20시간 끓인 진짜 국물로 만든 라면요리다. 인스턴트 식품으로 저평가돼온 가공식품에 장인과 셰프의 역량을 불어넣은 제품으로 탄생시켜 본격 라면 시장에 진출했다는 설명이다.

하림이 내세우는 장인라면의 차별화 포인트는 육수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5000억 원을 투자해 만든 익산 공장, 각종 도계 인프라를 활용한 특유의 육수로 국내 라면시장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장인라면의 육수는 사골과 소고기, 닭고기 등 신선한 육류 재료와 버섯, 양파, 마늘 등 각종 양념 채소를 20시간 끓인 국물로 만들어졌다.

건면을 사용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건강 트렌드도 잡았다. 나트륨 양 역시 기존 라면(1650~1880mg)보다 훨씬 적은 1430mg으로 낮췄다. 라면이 MSG와 정제염 사용으로 나트륨 함량이 과도해 건강에 해롭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에게 권할 수 있는 라면을 만들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윤석춘 하림 사장은 이날 서울 논현동 하림타워에서 열린 '더(The)미식 장인라



14일 하림타워에서 열린 'The미식 장인라면' 출시 미디어 데이에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라면을 직접 끓여 참석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면' 기자 간담회에서 "하림은 국내 최대규모의 도계장을 가지고 있다. 닭뿐 아니라 돼지, 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라면서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림의 '퍼스트 키친'도 구축했다. 메인 공장에서는 육수를 만들면 바로 옆 라인에서 조립을 하는 식이다. 조만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첨단 소비자 물류센터를 기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를 모델로 발탁하면서 해외 시장 타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라면은 글로벌 집밥족에



하림은 'The미식 장인라면' 광고 모델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 주인공인 이정재를 발탁했다. 출처 하림 인스타그램

힘입어 지난해 이후 코로나 특수를 누린 대표 K먹거리인 만능 드라마 돌풍과 맞물려 해외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 하림 측은 우선 국내 시장에서 먼저 선보인 후 해외 현지 시장에 맞춰 접근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하림이 내년에 목표로 잡은 라면 매출액은 700억 원 이상이다. 특히 라면과 함께 선보인 'The 미식 브랜드'를 가정간편식(HMR) 브랜드로 키워 1조5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다. 생산 능력도 이미 확보했다. 1000억 원 이상 공급

하기에 문제가 없는 상태다. 추가 증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뒀다. 현재 2개 라인 생산 설비를 5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라면 후발주자로서 하림이 두각을 나타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라면시장 전통의 강자인 농심, 오투기, 삼양식품의 점유율은 96%에 달한다. 치열한 대대 경쟁의 틈을 비집고 하림이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올 3월 새롭게 시장에 진출한 즉석밥 '하림 순밥' 역시 시장 점유율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CJ제일제당, 오투기의 견고한 아성에 밀려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림의 올해 즉석밥 매출 목표액은 200억 원이다.

하림 관계자는 "즉석밥 시장은 라면보다 훨씬 어려운 시장이지만 즉석밥만의 니즈가 있고 이를 잘 공략한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서 "라면 역시 이달 내 편의점과 3대 대형 마트에 입점할 정도로 유통채널이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 이마트24, 말레이시아 MZ 공략 나섰다

션웨이 대학 인근 5호점 오픈  
젊은층 겨냥 그래피티로 꾸며



'이마트24 이마트24'가 100평 규모의 힙(HIP)한 대학가 매장을 선보이며 말레이시아 MZ세대 잡기에 나섰다.

이마트24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션웨이 대학 인근에 5호점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6월 쿠알라룸푸르에 1호점을 선보인 후 오피스·주택가 상권에 4호점까지 오픈하며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고객층에 이마트24를 알리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5호점은 대학가에 처음 선보이는 매장이지만 현지 젊은 고객을 겨냥해 감각적인 콘셉트로 선보인다. 매장 외관과 내부를 그래피티로 꾸미는 파격적인 인테리어와 함께, 콘크리트 벽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감각적인 카페 스타일로 젊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마트24 말레이시아는 매장 곳곳에 한글을 사용해 K-편의점임을 강조하

고, 그래피티와 콘크리트 벽면을 그대로 노출해 힙한 분위기를 연출한 만큼 트렌드에 민감한 말레이시아 MZ세대의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운 날씨로 식사를 외부 식당에서 해결하는 말레이시아 문화에 맞춰, 동시에 30명이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을 비치하고 한국식 컵밥, 떡볶이, 닭강정 등 현지인에게 인기 있는 K-푸드를 판매한다.

실제로 이마트24 말레이시아 1~4호점의 판매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컵밥, 떡볶이, 닭강정, 빙수, 삼각김밥 등 K-푸드 즉석 먹거리 매출이 전체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편의점에서 즉석 먹거리 매출 비중이 10~20%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컵밥·떡볶이·닭강정은 하루 최대 1000개씩 판매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프레소 원두커피는 10여종의 즉석제조차류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과자류는 말레이시아 현지 상품과 이마트24 PL(Private Label)상품인 '아임이' 등 대한민국 과자 상품을 8:2 비율로 구성해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대한민국 스낵 상품이 70%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다.

김준우 이마트24 해외사업팀 팀장은 "이번 5호점은 대학가에 위치한 점포인 만큼 MZ세대 사이에서 부는 한류 열풍 영향으로 한국 편의점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테리어를 선보인 만큼 말레이시아 젊은 고객들 사이에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신세계푸드, 벨기에 전통 감자튀김 신세계푸드가 스텔라 아르투아와 협업해 출시를 위한 벨기에 감자튀김 '벨지안 프리츠'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팝업 레스토랑 '프리츠 아르투아'에서 모델들이 '벨지안 프리츠'를 소개하고 있다. '벨지안 프리츠'는 11mm 두께로 썰어낸 감자를 튀긴 후 급속냉동한 제품으로,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담백하면서도 포슬포슬한 벨기에 전통 감자튀김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푸드

## 롯데면세점,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특허심사 거쳐 최종 선정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DF1 구역 면세 사업권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을 포함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참여해 경쟁을 벌인 끝에 롯데가 사업권을 가져가게 됐다.

DF1은 화장품과 향수 등을 판매하는 구역으로, 현재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면세 구역 규모는 약 300평(991.48㎡)이다. 임대 기간은 5년이다. 다만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국공항공사 고령 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 연동제를 면세점에 적용한다.

롯데면세점은 관세청 특허 심사 통과시 내년 1월부터 최소 5년간 면세점 운영권을 갖게 된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의 특허신청서를 20일까지 받고 특허심사를 거친 뒤



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 전경.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

롯데면세점은 "남아 있는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드코로나 기조에 힘입어 여행 재개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면세점 업계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입찰이 세 차례나 유찰됐던 데 비해 달라진 분위기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DF1) 면세점 운영자 선정 입찰도 흥행 기대감이 높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맥주·치킨도 신제품 오디션 본다?

롯데칠성, 맥주 블라인드 평가  
당근마켓·자담치킨 등 인기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가 유통업계로 번졌다. 스타를 발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신제품이나 새 홍보 대사를 발탁할 때 오디션처럼 인기 상품의 우열을 가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온라인 투표로 오디션 본선에 오른 10개 수제맥주의 순위를 정하기 위해 소비자 블라인드 평가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

롯데칠성음료가 수제맥주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수제맥주 컨이되다'는 중소형 수제맥주 브루어리를 대상으로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인큐베이팅 기회를 제공하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 지원이 들어가는 본선진출 맥주 '톱10'을 가리기 위해 지난 9월 6일부터 24일까지 73개 수제맥주를 대상으로 소비자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온라인 투표시 함께 지원받은 시음단 신청자 1153명 중 100여명을 선정해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회에 걸쳐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다. 26일 전문가 블라인드 테스트까지마친 후 온라인투표, 소비자평가, 전문가평

가 점수를 종합해 10월 말 최종 우승맥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은 '당근 굿즈 오디션'을 열고 인기 상품을 선정했다. 당근굿즈 오디션은 53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1위는 '당근 폴딩카트'가 차지했다.

오디션 본선은 8강에 오른 아이디어에 대한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당근 폴딩카트'는 향후 실제 굿즈로 제작될 예정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자담치킨은 3월 SNS에서 치킨 연습생들이 서로 경쟁하는 오디션 프로젝트 '자, 담은 누구인가'를 진행했다. 가상의 연예 기획사인 '자담엔터테인먼트'가 차기 스타를 발굴하기 위해 치킨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한다는 설정의 SNS 영상으로 신메뉴 경쟁이 펼쳐졌으며 총 4개 메뉴가 최종 후보로 선정돼 경쟁 한 바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성지 품은 대우조선해양건설, 5년내 수주 톱20 진입”

## 인터뷰

김 용 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올해 수주총액은 2조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영업력과 성지건설의 인지도가 시너지를 일으켜 5년 안에 수주액 톱20에 진입할 것입니다.”

3년 새 건설사 두 곳(대우조선해양건설·성지건설)을 잇따라 인수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건설사 두 곳을 동시에 끌어갈 업계 다크호스로 부상한 김 회장은 최근 이투데이 본지를 통해 자신의 경영철학과 포부를 아낌없이 전했다.

주택사업에 대한 김 회장의 관심은 ‘실패’에서 비롯됐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모기업인 한국테크놀로지에서 에너지사업의 하나로 플랜트 사업을 수년간 추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녹록지 않은 건설업에서 쓴 맛을 본 김 회장은 주택·토목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이후 2019년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인수했다. 당시 이 회사의 연간 수주액은 약 2500억원. 김 회장은 이듬해 이를 7400억

성지 인지도와 본사 영업력이 시너지를 발휘해 도약 이룰 것을 수주액 2兆, 성장비결은 ‘인재’ 고급화 지향 ‘평택 엘크루’ 인기

원으로 끌어올렸고, 올해 상반기에는 1조 원 규모로 불렀다.

파죽지세의 성장 동력엔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다. 그는 “100대 건설사 중 인센티브를 최고 수준으로 주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회사는 기존 인센티브에 플러스를 얹어놓은 ‘슈퍼스타 제도’도 수립 중이다.

‘건설사는 곧 금융사’라는 경영철학도 성장 동력으로 꼽았다. 아파트는 곧 금융자산으로, 건설사는 가치를 키울 책무를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TV 광고보다 철저한 사후관리(AS)가 소비자의 제감과 만족도를 높여 브랜드 각인 효과로도 이어진다고 믿었다.

이 철학을 실현한 곳이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14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평택 뉴비전 엘크루’)다. 김 회장은 이 단지를 고급화하기 위해 외관 도색과 조경을 과감하게 같이 앞섰다. 그는 “추가적인 행정 절차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사 아파트 브랜드 ‘엘크루’의 의미처럼 고급스럽고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한 아파트를 짓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대우조선해양건설

를 거쳐서라도 무채색으로 외관을 바꾸고, 빗뿔나무는 전부 뽑아 아파트 6~7층 높이의 소나무로 대체하는 대대적인 교체 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강남 고급 아파트의 설계가 평택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 아파트의 웃돈(프리미엄)은 현재 최대 2억 원 수준이다. 통상 1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선 준공 후 4만5000건 이하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단지의 민원은 3분의 1 수준으로 적었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최근 새 ‘엘크루’ BI(브랜드 아이덴티티) 론칭 제막식도 이 곳에서 열었다. 엘크루는 2007년 당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모기업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이 주택 부문 진출을 위해 만든 주거 브랜드로 엘레강스 크루즈(Elegance Cruise)의 약자

다. 바다 위 호화롭고 여유로운 크루즈 생활을 땅 위에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는 “엘크루의 의미를 알고 크루즈 같은 고급스럽고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한 아파트를 짓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했다.

건설업에 대한 김 회장의 공세는 올해 더 거세졌다.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 2년 만에 성지건설까지 손에 넣었다. 그는 “성지건설은 브랜드 평판 조사 때마다 30위권 안에 들 정도의 높은 인지도를 가진 곳이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가진 영업 파워가 더해지면 그룹 내 건설부문의 수주액이 5년 안에 국내 건설 수주액 20위권에 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회장은 건설업에 대한 열정 못지 않게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포부도 컸다. 25년간 업력을 쌓으며 사업 확장과 이익에 매진했다면, 최근 들어선 ‘겸손한 관리자’가 되려는 신념이 강해졌다. 김 회장은 지금이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말한다. “계정조차 없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개설해 컬링을 홍보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려 합니다. 앞으로 어떤 경영인으로 살지에 대한 고민의 무게가 한없이 무겁습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돈줄 죄기 통했나... 9월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금리 인상·공급 확대에 상승세 둔화 방배아크로리버 한달새 2.4억↓ 실거래가 하락 단지 35%로 늘어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등 정부의 공급 시그널과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비중이 지난달(1~26일 신고 기준) 35.1%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20.8%)보다 14.3%포인트(p) 확대된 것이다. 올해 들어 월 기준 최고치다.

올해 4월 이후 지속해서 축소되던 하락 거래 비중이 5개월 만에 확대 전환됐다.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은 4월 33.3%에서 5월 27.6%, 6월 23.9%, 7월 22.1%, 8월 20.8%로 4개월 연속 하락하기도 했다.

4·7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되면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커진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달에 이 비율이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이는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강해진 데다 8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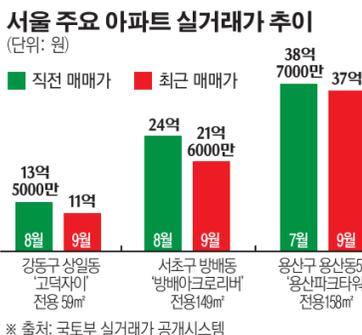
실거래가가 억 단위로 하락한 아파트 단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 전용면적 59㎡A형은 지난달 9월 11억 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인 8월 13억5000만 원보다 2억5000만 원이 내렸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크로리버’ 전용 149㎡형도 지난달 10월 21억6000만 원에 거래돼 직전 8월 24억 원보다 2억4000만 원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서울 아파트값 동향에서도 9월 들어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 0.21% 올랐으나 셋째 주 0.20%, 넷째 주 0.19%로 상승폭이 줄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매매시장에서는 매물도 점차 쌓여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4만1141건으로, 한 달 전(9월 14일·3만9405건)보다 4.4% 늘었다. 지자체별로는 광진구의 매물 증가율이 한 달 새 15.1% 늘어 가장 높았다.



이어 중랑구(14.6%), 강서구(13.4%), 용산구(12.5%), 노원구(12.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본격적인 하락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다만 그동안 가격 급등으로 인해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고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 전망도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주택시장 과열을 야기한 만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가 집값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장 집값이 크게 내리기보다는 거래량과 상승률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지표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도 공급 대책에 더욱 속도를 내고 고배를 다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자 lly0403@

## 왕릉앞 아파트, 경관 훼손논란 철거위기 건설사 “기와 없겠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 장릉(章陵) 인근 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과 대광건설,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가 문화재청에 ‘아파트 철거’가 아닌 ‘외관 변경’을 담은 개선안을 제출했다.

아파트 전면 철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강경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재산 피해로 귀결되는만큼 정부의 대처 방안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에 건축물이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 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방건설 등이 제출한 개선안에는 아파트 철거가 아닌 단지 외관을 변경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관계자는 “골조 공사까지 마친 상태라 철거는 불가능하다”며 “아파트 외관의 색채나 패턴을 왕릉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하거나 지붕에 기와를 얹는 등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릉 근처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는 대방건설 ‘검단신도시 노블랜드에듀포레일’, 대광건설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에미지트리플에

듀’ 등 3곳으로 내년 6~9월 입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건물은 모두 지어졌고 내부 마감 작업 정도의 잔여 공사만 남았다.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는 인천 도시공사로부터 택지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엔 인허가 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화재청은 엄정 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현재 공사 중단, 형사 고발, 관계 공무원 감사까지 요구했다”며 “향후 공사가 진행된 건물

에 대한 조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존 500m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개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건설사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한 달도 안돼 21만 명을 돌파했다. 입주 예정자 A 씨는 “건설사와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에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왔게 생겼다”며 “정부가 나서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경기 김포시 풍무동 장릉에 있는 무덤 사이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건설사 “외관 변경” 개선안 제출 김포 신도시 입주자들 ‘발 동동’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2800가구 예비입주자 모집

서울시가 2800가구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강서구와 노원구 등 7개 구 23개 단지에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물량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2170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630가구 등이다.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10월 15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이면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탈북자, 장애인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에 따른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관련 기준에 따라 배점 합산과 서울시 거주 기간, 신청자 나이가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접수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예비 입주자는 내년 1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할 수 있다.

공급 신청은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나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중앙지검장)

# 이정수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범주에 포함”

###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밝혀 “녹취록 속 ‘그분’ 정치인 아냐 다른 사람 특정한 것은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화 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을 일으킨 녹취록 속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지검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토 중이고 실제 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장이 최종 인허권자이자 결정권자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그런 부분 많은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전 의원은 “전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와 배당이 누구에게 갔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결국 끝까지 이재명 지사에게 항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고 캐물었다.

이 지검장은 “(이 지사는) 지금 피고발인”이라며 “수사 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환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며 “수사 계획, 일정 같은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검장은 다만 “모든 사항이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며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간에서는 수사팀의 수사 의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고발장 접수 후 수일 내에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고 신병도 확보했다”며 “그만큼 저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야당에서 공세를 펼치는 이 지사 연관설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지검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분’ 정체에 대해 묻자 “녹취록에 김

씨가 저런 부분을 말했다는 전제로 보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와 사뭇 다른 측면이 있다”며 “혹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녹취록이나 새로운 자료를 언론사에서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군데 있지만 세간에서 말하는 그 인물(이 지사)이 아닌 다른 분을 특정한 것은 있다”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 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동규 씨는 이재명의 게슈타프라고 불리는 최측근이

라며 “이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느냐”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늘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는 신속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둘 다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 전 총장 사건을 꺼내 들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2020년 4월 고발됐는데 올 7월에야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했다”며 “1년 이상 끌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 등 가족에 대한 사건만 전부 다 무혐의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대장동 개발 로바·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법, 사법농단 첫 판결… 유해용 무죄 확정

### “재판기록 무단 반출 아냐”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처음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2016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다른 연

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토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도 “피고인이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판 업무 보조를 위해 쟁점 등이 검토된 연구보고서에 불쾌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이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홍인석 기자 mystic@

## ‘10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나 현장에 있던 제삼자의 법정 진술을 종합해보면 스스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공범에게 범행교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히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는 과거 다른 사기 사건의 형집행이 종료되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인 누범기간에 발생했다”며 “사기 피해 금액은 편차가 크지만 합계 116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열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000여만 원, 전직 언론인 송모 씨가 17억4000여만 원을 김 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 됐다. 구제지 수습기자 sunrise@

## 이번 주말 올가을 첫 한파특보

이번 주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일요일인 17일에는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토요일인 16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고 14일 밝혔다. 17일 전국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0~15도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최저기온은 1도, 춘천은 0도 수준까지 떨어지겠다. 내륙과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첫 영하 기온도 기록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15~16일 북쪽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동쪽 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기압골이 빠져나간 뒤 시베리아에 중심을 두고 있는 매우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급격한 한파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은평 기자 pepe@

## “징계처분 정당” 윤석열 1심 패소

### 재판부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공공수사부에 전달 지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중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점,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 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 중 정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지활동을 할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판결 직후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왔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윤 전 총장은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12월 직무배제 명령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의 비위 의혹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 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했다.

구제지 수습기자 sunrise@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 성착취 영상물 판매·배포 등 혐의 전자발차 부착·추징 명령도 유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

쳐 약 1억80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1심에서 조 씨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40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피해자를 협박해 복종하게 하고 성적 사진, 동영상 촬영하게 한 뒤 유포해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큰 고통을 줬다”며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 씨 측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조직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다소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집단조직죄,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 씨는 징역 13년, 전직 공무원 천모(30) 씨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억지 감동보다 진솔한 삶 보여주는 게 에세이죠”

## 수필가 효재 문장옥

문장옥 수필가의 호는 효재(效在)다. 효재란 ‘누군가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뜻이다. 자신은 아직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해서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한다. 그녀는 교사였다. 그러나 마흔여덟 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교직을 내려놓아야 했던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다. 그 아픔을 딛고 수필가로 새로운 인생을 연 그녀의 삶을 한 편의 담담한 수필을 읽듯 들어보았다.

엄마 노릇 하려 교편 놓았다가 펜 들어  
8월 두 번째 수필집 ‘내 안에 불꽃’ 내  
죽음 앞에서도 삶의 열정 잃지 말아야

문장옥 수필가가 마흔여덟 살에 교직을 내려놓게 된 것은 그즈음 두 아들이 사춘기를 맞아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가정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탓이 아닐까 싶어 지난 삶이 후회되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독립해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막상 그만두고 나니 교직에 대한 아쉬움이 컸고, 내 인생의 후반기를 여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엄습했습니다.”

고민 끝에 시작한 것이 수필 쓰기였다. 선생님이란 호칭으로 살아온 20여 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작가라는 호칭을 갖고 보니, 독자에게 감동을 줄 만한 작품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작품을 통해 ‘나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내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자신을 설득한 다음부터는 수필가로서의 생활에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 제2의 인생이 마침내 그녀에게 다가온 것이다.

### 몸짓으로 써내려가는 새로운 인생

수필가로서 문장옥은 두 권의 수필집을 냈다. 첫 번째가 ‘행복정원에 들다’, 두 번째가 ‘내 안에 불꽃’이다. 그녀는 지난 8월에 낸 ‘내 안에 불꽃’을 통해 독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진심 어리게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에세이란 문학의 특징은 다른 문학 장르와 달리 작가의 진솔한 삶이 그대로 녹아내려 인품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저의 아픔과 회한,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까지 솔직히 드러내어 독자에게 공감과 주고자 했고, 작은 위안과 교훈이라도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독자에게 죽음과 맞닿게 되더라도 삶의 열정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순간, 삶의 이유도 보람도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잘것 없는 작품일지 모르지만 제가 작가로 살아가도록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 삶의 열정을 잃지 않고 온몸으로 쓰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싶다는 문 작가의 말처럼 ‘내 안에 불꽃’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본인의 암 수술 경험까지, 그녀의 삶에서 죽음은 잔인하게 왔다 사라졌다 다시금 나타나는 실제적 위협이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죽음 자체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모님을 보내면서, 저 자신이 네 번의 큰 수술을 하면서 삶의 옆에는 죽음이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웰다잉이란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을 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가까운 체험은 자연스레 인생에 대한 담담한 관조를 갖게 했다. 그럼에도 인생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기도 하다.

“나이가 칠십이나 되었는데도 인생이란 단어를 논하는 것은 자신이 없어요. 아직도 어린애 같은 천진함과 호기심이 남아 있어, 남편에게 가끔 핀잔을 듣곤 합니다. 저는 ‘이 나이에 뭘 한다고?’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삶의 열정을 잃지 않고 무엇이든 도전해보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뒷방 늙은이’로 전락하는 신세는 면하지 않을까요?”



###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참다운 나

자신의 말처럼 문 작가는 지금의 삶을 하나의 도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죽음에 대한 담담한 수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도전으로서의 작가 인생은 생활적인 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자신의 서재에 이름을 붙였다. ‘진야당’으로 ‘참 내가 있는 집’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참다운 나’란 어떤 사람일까.

“자신에게 정직하고 거짓이 없으며, 진실하고 참되며, 타고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삶의 근원이자 행복의 근원이 아닐까요? 윤동주 시인이 자신의 인생관을 보여준 ‘서시’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처럼 저 역시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녀는 삶이 좋은 수필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나날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도움이 되고, 작으나마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소박하지만 감동 있는 삶이 될 때, 그것이 글이 되었을 때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일까. 그녀의 삶은 어떤 사람들의 삶에 남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녀가 교사 생활을 하던 시절의 두 제자가 바로 그들이다.

“한 사람은 제가 초등학교 교사 시절 1학년 학생으로 만난 제자인데, 지금은 서울의 모 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있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 20년 넘도록 스승의 날은 물론 가끔씩 저를 찾아와 식사도 하고 수다도 떠는 친구 같은 제자예요. 또 한 사람은 제가 중등학교 시절에 만난 문제 학생이었는데, 이젠 어엿하고 반듯한 건축회사 중견 간부가 되었습니다. 헤어진 후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어렵게 나를 찾아내 보은하는 고맙고도 잊을 수 없는 제자들이랍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알게 해준 귀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 남편은 행복을 공유하는 소중한 존재

그녀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잃고 싶지 않은 것으로 ‘자유로운 삶’을 들었다.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엄격한 법칙에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속박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주부로서 가족에게 봉사해야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고 사랑을 품은 가운데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각 방을 쓰고 있지만 누구보다 잉꼬부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해요.”

그 말처럼 그녀에게 남편은 행복을 공유하는 소중한

부모님 보내고 암 수술하며 죽음 수용  
건강한 정신 있을 때 ‘웰다잉’ 준비해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삶 꿈꾸죠

상대다. 노후의 행복을 꿈꿀 때 그녀는 무엇보다 먼저 남편을 떠올릴 정도였다.

“자녀들이 독립해 집을 떠난 지금은 남편과 한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누렸던 낭만적인 느낌은 약해지긴 했지만, 이젠 서로가 익숙한 처지라 같이하는 시간이 편안해요.”

### 남은 인생 동안 더 많이 사랑하고 베풀 것

문 작가는 회갑이 된 기념으로 첫 번째 수필집 ‘행복정원에 들다’를 냈고, 칠순 기념으로 두 번째 수필집 ‘내 안에 불꽃’을 냈다. 두 권의 책을 냈지만 쓰면 쓸수록 걷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여로임을 절감한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 독자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아쉬움이며 동시에 다시 펜을 잡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하다.

“만약 세 번째 책을 낸다면, 남은 인생 동안 더 많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도전하고, 독서와 글쓰기에도 게으르지 않음으로써 푸근한 감동으로 다가가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문장옥이라는 수필가 안에 숨길 수 없는 벽찬 감흥이 밀려 왔다. 그녀의 진솔한 민낯이 사랑스럽다.

글/김영순 기자 kys0701@  
사진/브라보 마이 라이프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골프**®

# 최대 50yd 더 나가는 제3의 기술

지금까지는 세계 톱 프로만 누리던 2단계의 클럽 최적화  
뱅골프의 진화된 3단계 최적화 기술로  
아마추어 골퍼도 완벽하게 나에게 맞는 클럽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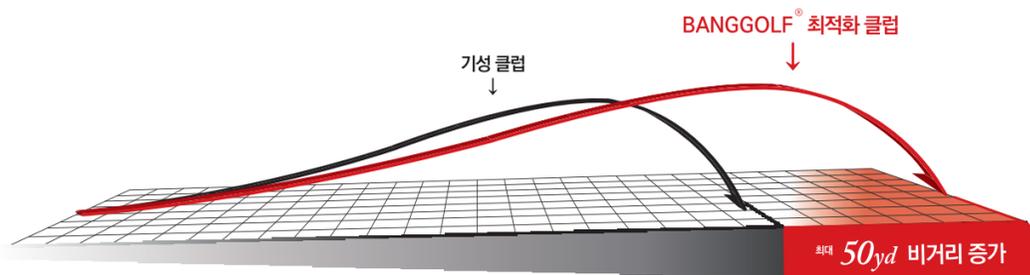
세계 어느 골프업체도 하지 못한  
**3단계 최적화 기술로**  
골프 클럽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모든 클럽 업체가 여자용은 단 1개의 스펙, 남자용은 6-9개의 스펙뿐이라서  
모두 똑같은 스펙의 클럽을 사용하는 잘못된 공급과 구매를 반복해 왔습니다

뱅골프는 10,368,000개의 스펙을 보유하고  
귀하에게 딱 맞는 사양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상위 0.1% VVIP 고객을 위한 골프클럽 최적화 서비스



### 골프 클럽 3大 기술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 + 3단계 최적화 기술



# ‘포스트 JP’ 떠올랐다 끝내 못 이룬 ‘충청 대망론’

### ‘혈액암 투병’ 이완구 前 총리, 71세 일기로 별세

#### 3선 의원 출신...충남지사 시절 ‘세종시 수정안 반발’ 사퇴 朴정부 총리로 충청권 맹주 부상 ‘성완중 리스트’ 연루 퇴진

충청권 대표 정치인으로 불리던 이완구(사진) 전 국무총리가 14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1세.

충남 홍성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양정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재학 중이던 1974년 행정고시(15회)에 합격했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으로 잠시 근무하다 경찰로서의 제2의 인생을 찾아 고향인 홍성에 최연소 경찰서장(31세)으로 부임했다. 이후에도 최연소 경무관(39세)이 됐다. 1995년 2월 충남지방경찰청장을 끝으로 정치권에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주자유당에 입당 후 1996년 총선 때 신한국민 후보로 유일하게 충남 청양·홍성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1998년 김종필(JP) 총재가 이끌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 합류해 대변인과 원내총무(원내대표)를 지냈

다. 당시 김 총재는 그의 정부 감각을 높이 평가했다. 한때 ‘포스트 JP’로 불리기도 했던 이이다.

2000년 총선 때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후 수년간의 정치 공백 기간을 두고 미국에서 생활했다. 귀국 후 한나라당으로 돌아가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충남지사에 당선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애초 계획이었던 세종시 원안을 바꿔 정부 부처 대신 기업이 입주하는 수정안을 추진하려 하자 이에 반발해 “충남도민의 소망을 지켜내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임기도중 사퇴했다. 이것을 계기로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정치적 인연을 맺게 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에 충남 부여·청양에서 다시 금배지를 달았다. 2014



년 5월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어수선했던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추대됐다. 원내대표 시절 그는 세월호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교체하기 위해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다. 하지만 잇따라 낙마했고 결국 충청권 출신이자 정치인인 그를 2015년 1월 총리로 지명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취임했다.

하지만 그의 총리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다. 취임 두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 사건이 터졌고 연루설이 불거지며 취임 63일 만에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셈이다. 국무총리에 올라 승승장구하며 충청권을 대표할 대권 주자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예상치 못한 정치적 위기로 ‘충청 대망론’은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후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그동안 깊어진 상처와 고통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출마 제의에도 불출마를 선언, 정계에서 사실상 은퇴했다.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2년 초 다발성골수종(혈액암의 일종) 판정을 받아 8개월간의 항암치료를 받고 완치했다. 하지만 최근 암이 재발해 다시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행복대상’ 장필화 여성재단 이사장 등 8명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4일 ‘2021 삼성행복대상’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여성선도상에 장필화(70·왼쪽 사진부터)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여성창조상엔 김봉옥(67)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가족화목상엔 김일주(83) 씨가 선정됐다. 효 실천 또는 효 확산에 기여한 청소년에게 수여되는 청소년상엔 유현우(14·동성중 2), 박하영(17·광양고 2), 박근난(19·부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하혜정(22·대구대 4), 박동규(24·영남대 4) 학생이 뽑혔다.

수상자들은 국내 각계 주요 기관과 전문 인사들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분야별 저명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업적 검증과 현장 실사 등 3개월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확정됐다.

여성선도상을 받은 장필화 이사장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1984년 한국 첫 여성학과인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로 부임해 500여 명의 여성학자를 배출하고, 국내 100여 개 대학에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도록 지원하는 등 한국 여성학 도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성창조상을 받은 김봉옥 위원장은 국내 1세대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지원’, 전국 단위로 재활에 특화된 병원을 구축하는 ‘권역재활병원’을 제안하는 등 우리나라 재활의학의 개척했다. 가족화목상을 수상한 김일주 씨는 경북 울릉군에서 홀로 되신 모친이 104세가 된 지금까지 46년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효행 실천 가족의 본보기가 됐다.

노우리 기자 we1228@

## 우주 다녀온 ‘스타트렉’ 키크 선장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경험”

### 90세 노배우 윌리엄 새트너 ‘최고령 우주인’ 기록

1960년대 미국 인기 드라마 ‘스타트렉’의 제임스 키크 선장을 연기했던 노배우 윌리엄 새트너(90)가 실제로 우주여행의 꿈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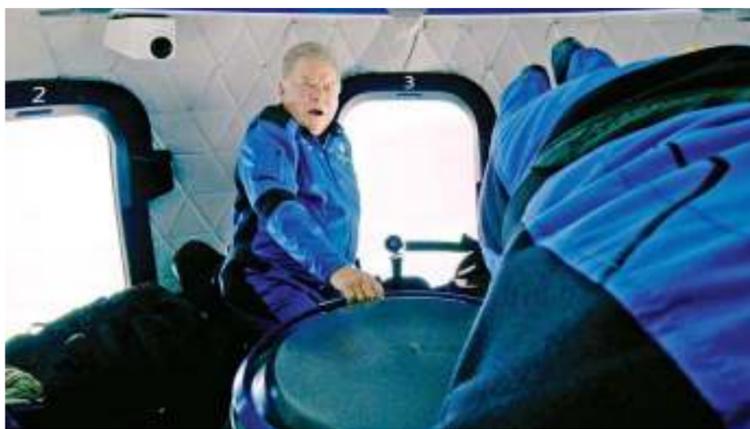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미국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은 13일(현지 시간) 텍사스주 벤톤 발사장에서 새트너를 태운 ‘뉴 셰퍼드’ 로켓 우주선을 발사한 뒤 무사 귀환에 성공했다. 새트너는 이번 우주여행으로 우주 탐사 역사상 최고령 우주인이 됐다.

우주선에서 내린 새트너는 환영을 나온 베이조스를 껴안았다. 그는 “믿을 수 없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경험이 었다”며 감격에 벅차 잠시 눈물을 글썽였다. 90세 노배우는 푸른 지구를 벗어나 압축의 우주를 엿본 것에 사색적인 질문도

던졌다. 그는 “만물의 어머니 지구가 (아래에) 있는데 죽는다는 게 이런 건가. 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블루 오리진의 두 번째 우주관광이다. 새트너 등 우주 여행자 4명을 태운 우주선은 이후 지구와 우주의 경계로 불리는 고도 100km ‘카르만 라인’을 넘어 약 3분간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 중력 상태를 체험하고 지구로 복귀했다.

새트너는 스타트렉에서 거대 우주선 엔터프라이즈호를 지휘하며 은하 곳곳을 누볐지만, 이날 실제 우주여행에는 10분 정도만 걸렸다. 그의 우주여행에는 전직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엔지니어 크리스 보슈이즌,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임원인 글렌 더프리스, 블루 오리진 부사장 오



드리 파워스가 동행했다. 블루 오리진은 초대받은 새트너는 제외하고, 보슈이즌과 더프리스가 이번 우주여행에 얼마나 돈을 지불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스타트렉 명대사 ‘우주, 최후의 개척지(Space, The Final Frontier)’를 인용하면서 “새트너는 우주 여행과 동의어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새트너는 드라마에서 ‘낯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새 생명과 문명을 찾고 이전에 어떤 사람도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대담하게 가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혜리 기자 hyeri@

### LG전자 ‘한국IR대상’ 대상



LG전자는 한국IR협회가 주관하는 ‘2021 한국IR대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을 받은 LG전자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IR활동을 펼쳐 주주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확보하는 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우수상 수상 등 최근 3년 연속으로 한국IR대상 수상 기업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LG전자는 주요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애널리스트들과 만나 회사의 사업 방향성과 현황을 공유하고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지난해 말 ‘엘지마그나 이퍼워트 레인’ 합작법인 설립과 4월 휴대폰 사업 종료 등 기업 가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퍼프런 스킴을 실시했다. LG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연관된 IR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 대표이사 CFO 배두용(사진 오른쪽) 부사장은 “주주 중심의 경영 방침과 실행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시장 참여자와의 신뢰를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월드옥타 회장 장영식 前수석부회장

재외동포 최대규모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새 회장에 장영식(53) 전 수석부회장이 선출됐다. 월드옥타는 14일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이사회를 열어 장 전 수석부회장을 제21대 회장으로 뽑았다.

장 당선자는 순천대 졸업 후 1993년 단

돈 300만 원을 들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 전국을 망라하는 면세기업 에이산그룹을 일궜다. 한국인 처음으로 일본 전역에 가전제품 유통사업 진출이 가능한 ‘조달면허’를 취득했고, 일본 자위대가 발주한 세탁기 입찰에 성공해 납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부음

▲강진원 씨 별세, 박영수(전 평택대학교 교수) 씨 부인상, 박호성(제주대학교 교수)·원후(서울대 오페라연구소 음악감독)·원상(한국투자증권 베트남법인 대표) 씨 모친상, 손태규(서울외국어대학교 특임교수) 씨 장모상, 김주희 씨 시모상 = 1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홍옥선 씨 별세, 양창렬(GS건설 책

임) 씨 모친상, 김은미 씨 시모상, 양귀남(인더뉴스 기자) 씨 조모상 = 14일, 인천 가천대길병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032-460-3444

▲김장호(전 청도군 화양우체국장) 씨 별세, 김도윤(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 주임)·진길(청도군 화양우체국장) 씨 부친상, 정은철(매일신문 뉴스국 사진영상부장) 씨 장인상 = 14일,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2층 201호, 발인 16일 오전 8시 30분, 053-620-4647

### 인사

-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조세정책과장 변광욱 △재정관리총괄과장 이명선 △대외경제총괄과장 최지영 △개발금융총괄과장 지광철 ◇서기관 승진 △소특세제과 박준영 △부가가치세제과 김영현 △산업경제과 김태웅 △국제기구과 박은결 △복권총괄과 김원대 △재정정보공개과 오정림 △추진총괄과 최형석 ◇기술서기관 승진 △시스템구축과 김성진
- ◆국토교통부 ◇4급 승진 △서기관 이경선 최민석 황세은 김규한 오한영 좌명환 조은혜 조현익 김진후 최병길 정순열 조숙현 배성희 이보인 유중우 김수정 나정재 박정란 손상현 김성수 △기술서기관 박성출 박국준 양승 이종현 김용수 육인수 최찬 김병채 김태훈 김형수 서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소비자정책과장 신동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진 △연구위원 허정희 △책임전문원 김상범 맹문영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정대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경선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순회경선과 같이 순차투표의 형태로 진행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언더독 효과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난다. 결선투표를 노려야 하는 2인자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편익(expected benefit)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지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유인이 있는 것이다

‘대장동’과 ‘언더독’, 민주당 경선의 정치경제학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막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는데, 사실 그동안의 경선 흐름을 보았을 때 이러한 최종 결과가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면 1,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표 결과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던 이재명 지사가, 3차 국민선거인단 개표 결과 30%에 못 미치는 득표를 했다는 점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누군가는 이 결과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표심이 움직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선거인단의 표가 이낙연 전 의회 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같은 날 진행된 서울지역 현장선거인단 경선에서도 50% 이상을 득표했다. 만약 ‘대장동 개발 의혹’의 영향으로 표심이 움직인 것이라면, 왜 그것이 국민선거

인단에만 영향을 미치고 현장선거인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가 설명이 되어야 한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현장선거인단의 선호가 국민선거인단의 선호에 비해 훨씬 경직적이어서 해당 의혹에 영향을 적게 받았을 가능성이다. 현장선거인단은 대의원과 관리위원 등 당파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의혹이 제기되기 전부터 이미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를 정해 놓았다는 설명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해당 결과가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일 뿐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언더독 효과는 약자에게 심리적으로 애착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데, 선거의 상황에서는 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3차 국민선거인단 모집이 이재명 지사가 꾸준히 과반의 지지를 받아 왔던 순회

경선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언더독이라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의원의 지지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선거인단 모집에 참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경선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순회경선과 같이 순차투표(sequential voting)의 형태로 진행되는 상황, 그에 더해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언더독 효과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난다. 승리를 이어오고 있는 1인자에게 투표를 하는 것보다, 충분한 득표수를 모아 결선투표를 노려야 하는 2인자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편익(expected benefit)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지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유인(incentive)이 있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언더독 효과를 투표를 통해 개인의 행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기고

권현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보호담당



인류는 수 천 년의 역사를 이어 오며 세기의 거짓말을 목격해 왔다.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라 불리는 성경 속 선악과에 얽힌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거짓말은 늘 인류사에 존재했다.

오늘날 인류는 모바일 기기를 들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와 로그온(Log On)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 축제를 즐길 뿐 아니라, 물건을 사고파는 각종 거래나 사업도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추세이다.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하면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한 부분도 있지만, 직접 얼굴을 확인하지 않기에 누군가를 속여 이익을 얻는 방법 또한 쉬워졌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불법 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서 나타나는 ‘사칭’이다. 내가 거래하는 은행을 비롯해 국세청, 건강검진기관, 그리고 입사지원서를 낸 기업까지 사칭한다.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을 사칭하기에 해당 내용을 열어보지 않을 수 없다.

점점 교묘해지고 지능화하는 ‘사이버 사

생활 속 나를 지키는 ‘안심 서비스’

기’는 적법한 정보와 광고를 전송하는 정부기관·기업, 이를 받는 수신자에게도 난감한 상황을 만든다. 정부는 사후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 및 규제할 수 있지만, 개인 정보 교류에는 관여할 수 없어 실시간으로 정상적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바로 선의의 피해자인 정상 기업과 수신자에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칭이 이뤄진 방식을 보면, 음성 전화의 경우 수신자의 모바일 기기에 뜨는 발신자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문자는 텍스트로 기업명과 전화번호를 도용해 왔다. 이 같은 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통신사는 정상적인 전송자임을 인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송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특정 공간에 ‘기업 로고’를 넣거나, 사전 등록된 기업 이미지 등을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수신자가 안심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OO 은행’ 이름이 똑같이 쓰여 있더라도 정해진 공간에 ‘기업 로고’가 없다면 사칭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수신자는 ‘후후’나 ‘T전화’ 등 일명 ‘전화번호 평판 앱’을 이용해 지금 나에게 걸려온 전화·문자가 스팸신고로 많이 접수된 전화번호인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대량으로 문자를 보낼 일이 없는 개인의 경우, 자신의 번호가 문자 사이트 등에서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통사의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전송자와 수신자에게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통신사는 정보 전송을 매개하는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문제의 문자를 직접 필터링한다. 대표적으로 ‘스팸 차단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통신사에 가입할 때 기본으로 제공되며, 실시간으로 스팸 여부를 분석해 수신자에게 전달하기 전 자동으로 차단한다. 우리가 종종 받는 스팸은 이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고 전달된 것이다. 수신자마다 원하지 않는 정보가 다르고, 사칭하는 수법도 교묘하게 변하기 때문에 통신사의 일괄적인 필터링만으로는 수신자를 섬세하게 만족시키기란 사실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확실한 부분은 이 서비스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스팸의 총

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러한 필터링 서비스를 음성 전화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음성은 문자보다 필터링 기준을 잡는 것이 까다롭지만, 발신의 특정 패턴을 분석한다면 마냥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현재 일부 통신사에서 음성 스팸 필터링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데, 전 이통사로 확대하면 음성 스팸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통사의 직접 필터링에 따른 오차단·과차단 우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 통신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인류와 늘 함께 해 온 거짓말처럼, 이제 ‘사칭’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일상 깊숙이 침투했다. 특히 비대면성을 악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통신사는 필터링 서비스 등 보호 수단을 강화하고, 이용자는 이를 활용해 사이버상 안전조치를 취하며 대응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칭’이라는 또 다른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리 아이아코카 명언  
“경영이란 바로 다른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설적 기업가. 포드 영업사원으로 두각을 나타낸 그는 36세에 부사장에 올랐다. 그의 야심작 스포츠카 머스탱이 출시 18개월 만에 100만 대가 팔려 회장에 취임했다. 훗날 파산 직전의 경쟁사 크라이슬러 회장직을 맡아 서민용 소형차인 K기와 미니밴을 출시해 미국 톱 3 자동차 기업으로 만들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24-2019.

☆ 고사성어 / 분주파부(焚舟破釜)  
글자 그대로 ‘배를 불사르고 술을 부순다’라는 말이다. 원전은 손자병법(孫子兵法). 초(楚)나라의 항우(項羽)가 3만의 병사를 이끌고 20만의 진(秦)나라와 대진할 때 그는 강을 건너는 배를 가라앉혀 병사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술을 때려 부숴 3일분의 식량만을 배급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즉 절대 물러날 곳이 없다,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며 독전(督戰)해 승리했다.

☆ 시사상식 / 알 데스코  
본래는 ‘책상에서(AI desko)’란 뜻이지만 최근엔 사무실 책상 앞에서 급하게 먹는 점심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공기 좋은 야외에서 즐기는 식사를 뜻하는 ‘알 프레스코(AI fresco)’의 변형으로 사무실 책상에서 급하게 먹는 점심을 가리킨다. 물가가 오르고 바쁜 업무 속에서 점심시간조차 아끼려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등장한 신조어다.

☆ 신조어 / 방탄 커피  
진한 원두커피에 무염 버터와 MCT오일을 섞어 만든 커피. ‘버터 커피’라고도 불린다. 총알도 막아낼 만큼 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란다.

☆ 유머 / 동기부여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회학 교수가 한 여학생을 지목해 “무엇이 아침마다 자네를 일어나게 하지?”라고 물었다. 느닷없이 지목된 여학생이 당황하며 한 말. “네? 우리 엄마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대출이 막혀서 계약금 날리고 결국 이사 포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에 나서면서 시중은행이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대출난민’이 양산되면서 당장 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아비규환이다. 대출이 막히면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거나 전세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집값, 전셋값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규제하자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잡겠다고 연간 대출 총량을 6%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못 박았다. 정부의 엄포는 은행권의 대출 중단으로 이어졌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입주 잔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하나은행은 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를 줄인다. 시중은행의 대출 중단은 지방은행까지 확대되고 있다. BNK경남은행도 12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일부 신용대

출 등에 대한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내주 가계부채 보완 방안을 앞두고 있는 금융위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가계대출을 줄이면서 전세자금 같은 실수요자들의 대출은 막지 않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결국 결단을 내렸다. 고 위원장은 14일 “전세대출 증가로 총량제한이 6%를 넘어서더라도 이를 용

기자수첩

김범근 금융부/nova@



대출 패닉과 금융위의 결단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이슈&인물

세계 3대 디자인상 석권

이명중 한국타이어 디자인팀 책임

“타이어 디자인, 공학부서와 소통이 핵심”

“검은색 타이어가 무슨 디자인상을 받아?”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석권했다는 소식에 많은 소비자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차량 안전을 책임지는 타이어는 디자인 측면에서 차보다 오히려 한걸음 앞서야 한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11월 '도시 재구성'을 주제로 다가올 미래 도시 콘셉트로 제시했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은 물론, 대안까지 마련한 연구개발 콘셉트였다. 세계 디자인 업계는 한국타이어의 이런 방향성에 주목했고, 디자인 역량을 인정했다.

타이어 디자인은 자동차 디자인과 출발점부터 다르다. 선과 선이 만나는 자동차 디자인과 달리 타이어 디자인은 이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본다.

단순하게 '트레드(타이어와 도로가 닿는 면)' 모양을 디자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 자동차가 현실을 그려낸다면 타이어 콘셉트는 이상을 담고 있다. 이들의 콘셉트가 언제나 자동차보다 한 걸음 앞서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날카로운 경계선을 넘나들며 사는 한국타이어 디자인팀 이명중 책임 디자이너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었다.

IF·레드닷·IDEA 본상 모두 받아

한국타이어는 4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1'에서 콘셉트 부문 본상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첫선을 보인 콘셉트 'HPS(Hankook Platform System)-셀'이 주효했다. 7월에는 '레드닷 어워드 2021' 본상에도 올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IDEA 2021'에서 자동차 및 운송부문 '파이널리스트(Finalist)'에도 이름을 올렸다. 명실상부 세계 3대 디자인상의 본상을 모두 석권했다. 동시에 한국타이어가 지닌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도 입증해 냈다.

디자인팀 이명중 책임 역시 밤잠을 줄여가며 머리를 쥐어 짜낸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이번 수상의 배경으로 조직력과 팀워크를 꼽았다.

“훌륭한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숨씨는 물론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통을 통한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역량이에요. 시장의 요구부터 타이어의 성능 구현까지 기획하고 디자인합니다. 이후에는 공학부서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해요. 디자이너로서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된 제품을 개발할 수 없는 셈입니다.”

새로운 흐름을 발 빠르게 쫓아가며 시야를 확대한 것도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 “유행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은 하나의 독립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활동이 아니에요. 다양한 분야와 유기적인 소통이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넓은 안목은 필수인 시대죠.”

2년에 한번 '디자인 이노베이션' 진행

타이어 회사 디자인팀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한국타이어 디자인팀만 해도 산업디자인과 자동차디자인, 자동차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중심의 양산 타이어 디자인은 물론이고,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신 유행을 자



한국타이어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했다. 밤잠을 줄여가며 성과를 일궈낸 주인공들. 왼쪽부터 디자인팀 여지은 선임, 이명중 책임, 장희성 선임이 미래형 콘셉트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섰다. 사진제공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시장 요구부터 성능 구현까지

독립된 창작 아닌 유기적 소통  
조직력·팀워크가 수상 원동력

다양한 차체 얹을 수 있는

HPS-셀 플랫폼 자체 개발

노면에 맞는 타이어 패턴 가능

최적의 트레드 개발 위해

생체 모방 기술까지 연구

내가 생물학자인지 헷갈리기도



한국타이어가 선보인 HPS-셀 콘셉트. 하나의 플랫폼에 다양한 차체를 얹을 수 있다. 차 성격에 따라 타이어의 트레드도 발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히 분석하고 결과와 대안까지 뽑아내고 있습니다. 미래 타이어 연구 등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도 저희 몫이구요.”

그는 반복된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그래서 이번 3대 디자인상을 거머쥔 결과물 HPS-셀에 대한 애착도 강했다.

“한국타이어는 미래 드라이빙과 혁신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디자인 이노베이션'을 진행해요. 변화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과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번 콘셉트는 '타이어에서 시작한 변화가 우리 삶까지 바꾼다'는, 한마디로 '도시의 재구성'이라는 주제에서 시작했습니다. 용도별로 다양한 '포드(Pod-차체)'를 플랫폼 위에 얹어 최적화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 타이어 스타일도 바꾸는 개념이에요.”

HPS-셀은 하나의 플랫폼이다. 그러나 단순히 타이어 위에 다양한 차체를 얹는 개념을 넘어 타이어 트레드까지 바꿀 수 있는 방식을 담았다.

이 콘셉트는 기본적으로 격자 형태의 비공기압(에어리스) 타이어다. 센서 기술을 활용해 타이어 트레드와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가변 휠과 최적화된 인프라를 맞

물리면 노면에 맞는 타이어 패턴을 빠르게 바꿀 수 있다.

예컨대 노면 변화를 감지하면 주변 스테이션에 찾아가 해당 노면에 맞는 트레드를 바꿀 수 있는 개념이다. 교체 시간도 순식간에 마칠 수 있다.

레드닷 '루미나리' 수상 국내 유일

“최적의 트레드”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타이어 디자이너들은 ‘생체모방’ 기술까지 연구했다. 그 결과 세포의 기본단위인 ‘셀(Cell)’ 구조를 반복 배열했고, 최적의 셀 구조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물론 이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다.

“생체모방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셉트를 개발할 때는 내가 디자이너인지 생물학자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만큼 셀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다행히 결과가 헛되지 않았고요, 세계 3대 디자인상 석권이라는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니까 뿌듯했습니다.”

글로벌 디자인 업계가 한국타이어 디자인에 관심을 쏟게 된 비결도 짚었다.

“치밀하게 분석한 미래 환경의 예측이 주요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대안을 잘 풀 어낸 결과예요. 특히 2014년에 레드닷 어워드 '루미나리' 수상은 아직도 국내에서 상을 받은 곳이 우리 회사밖에 없어요. 그만큼 디자인 역량이 강화된 것이지요. 내심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최소화 목표

자동차는 빠르게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형으로 진화 중이다. 타이어 업계는 어떤 변화를 맞고 있고, 어떤 전략을 추진 중일까. 그의 대답은 방대했으나 각각의 뚜렷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전기차 특유의 강한 출력, 배터리 무게, 엔진이 사라지면서 증가한 소음 등에 최적화된 타이어를 위해 업계 또한 발 빠르게 대응 중입니다. 타이어를 개발할 때 특정 부분의 성능을 끌어올리면 다른 분야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존재해요. 이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친환경 차 타이어를 개발할 때에도 유기적인 조직과 팀워크는 필수다. “혹독한 성능 조건에 맞춰 패턴디자인과 기술개발이 융·복합적으로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성능을 결정짓는 패턴 디자인 요소, 컴파운드(타이어 재질)와 프로 파일 형태 등에 대한 개선은 물론, 각종 센서기술의 장착이 필요하게 되어 더 나은 사용자 경험으로 자동차와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사설

세계 최고 상속에, 서울·과세구간 전면 개편을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5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처럼 상속재산 전체 금액에 물리는 유산세가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나눠 받는 몫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한다. 게다가 우리는 기업 최대주주 지분에 20% 할증이 붙어 명목 세율이 60%에 이르면서 실제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OECD 회원국 상속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행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이미 소득세를 낸 자산에 다시 고율 상속세를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경영권을 위협하고 저축·투자를 저해하는 만큼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지나친 상속세에 대한 논란은 줄곧 이어져 왔다. 특히 가업승계를 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삼성의 경우 이견희 회장 유족에 부과된 상속세가 무려 12조 원을 넘는다. 5년 동안 나눠내는 데, 유족들은 주식을 담보로 한 수천억 원 대출로도 모자라, 2조 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본이 낮아져 경영권이 흔들리는 사태까지 우려된다. 삼성이 이런 지경이니, 작은 기업들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아예 회사를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다.

정부도 상속세 개편에 나선 움직임

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초 국회답변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방향과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이쯤에 시늬에만 그치지 말고 서울과 과세구간, 부과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상속세는 이미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 경제규모 확대로 기업과 개인의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우리 상속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지난 2000년 이후 20여 년째 바뀌지 않으면서 부담을 키우고 있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에서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곳이다. 하지만 독일·일본·프랑스 등 20곳은 유산취득세 방식이고, 우리처럼 유산세를 적용하는 곳은 4곳에 그친다. 호주·스웨덴 등 7곳은 자본이득세 또는 추가소득세로 대체해 부담을 줄였고, 캐나다나 오스트리아 등 7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다. OECD 회원국의 직계가족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은 15%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우선적으로 서울을 대폭 낮추고, 규모가 커진 자산을 감안한 과표구간 조정이 급선무다. 유산취득세 구조로 바꾸는 것도 당장의 대안이다. 나아가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팔아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가 아무리 소득세 분배의 의미를 갖더라도, 과도한 세금 부담보다는 생산적 투자로 흘러들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경제적으로 훨씬 큰 도움이 된다.

영화로 보는 세상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007 노 타임 투 다이'

미당 서정주는 자신을 키운 건 8할이 바람이라고 했다. 우리 세대(참고로 필자는 50대임)는 007 시리즈를 보면서 영화의 판타지와 남성의 로망과 할리우드의 위용을 체험했다. 그렇다. 007은 멋진 남성은 무릇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제임스 본드는 사실 가을이라는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다. 젊음과 생명력이 융솟음 치는 여름쯤 만나는 게 맞다. 그러나

코로나는 이마저 허용하지 않았다. '007 노 타임 투 다이'는 6년 만의 신작인데, 2020년 4월 예정이었지만 총 세 번을 연기하고서야 겨우 개봉할 수 있었다. 제작비도 3억달러나 들었고 러닝 타임도 시리즈 최장 길이인 163분

에 달한다. 다니엘 크레이그가 출연한 전작을 모두 본 관객이라면 '007 노 타임 투 다이'를 볼 때 더 큰 재미를 느낄 것이 분명하다.

이번 시리즈는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출연작이다. 손 코너리, 로저 무어, 티모시 달튼, 피어스 브로스난 등의 계보를 잇고 그만의 007의 모습을 보여줬던 작품들의 대단원을 마감한 것이다. 이번 작품은 직전 작인 '007스펙트'의 이야기를 이어받는다. 항상 007의 오프닝은 기대감을 갖고 보지만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 이번

에도 이번 영화의 메인을 이끌어 갈 매들린(레아 세두)을 강렬하게 관객들에게 소개한다. 이번 본드결로 매들린이 등장하지만 이전과는 결이 다르다. 레아 세두는 자신의 출연작(가장 따뜻한 색, 블루)이 무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명배우이며, 자산이 7조 원에 이르는 프랑스 영화제작사 가문의 금수저 출신이기도 하다.(그래서 그런지 지적이면서 품위가 느껴진다.)

그간 007의 이미지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가장 오래 제임스 본드 역을 맡았던 로저 무어는 항상 여유 만만하고 화려한 본드결을 거느리며 등장했으며 진지함과 거리가 먼 캐릭터였다면, 걸로는 단

단하지만 내적으로 예

민하고 상처를 잘 입는 본드의 모습은 다니엘 크레이크의 '007 카지노 로얄'부터 15년 동안 줄곧 지켜온 모습이었다. 이번에는 본드의 아내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점도 이채롭다. 다니엘 크레이크가 보여준 제임스 본드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던 인간이었으며, 과거의 회한으로 눈물을 보이는 007이었다. 쓸쓸한 그의 모습이 영화 문을 나서는 나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든다. 007이 마음까지 아프게 하리라곤 예상치 못했다.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배달 손님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포스기를 놓고 간 날에는  
손님들도 불편하고  
저도 기름값 두 배로 들고  
참 난감하죠.

근데 IBK BOX POS를 다운받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스마트폰은 늘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 내 폰을 POS기로

요즘 사장님을 위한 모바일 POS  
IBK BOX POS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IBK박스포스'를 검색해보세요!



**POS 모드**  
메뉴 관리, 테이블 주문 관리 등  
일반 POS 기능이 모두 가능합니다



**간편결제 모드**  
금액 입력 후 결제할 카드나 스마트폰을  
사장님 스마트폰 가까이 대면 결제 완료



**카드매출 입금확인**  
가게 매출이 카드사에 정상 매입되었는지,  
대금 입금일은 언제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일간 재무리포트**  
일별로, 시간대별로, 메뉴별로  
판매현황을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준법감서인 심의필 제2021-2508호(2021.07.02) 유효기간(2022.07.01)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BOX POS 고객센터(☎02-729-763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우를 받지 않습니다. 물리경영 위한 사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